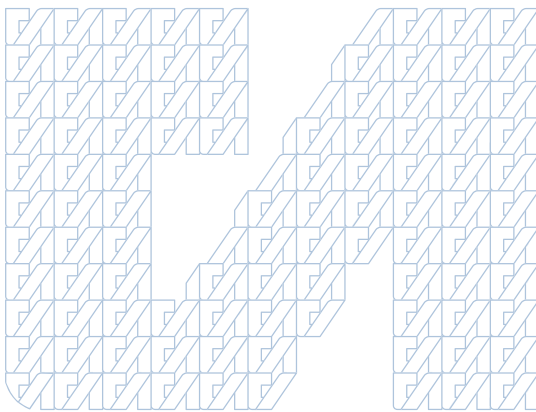


대전 도시경관의 도시정체성 확보 방안

한상헌·양승희·염인섭



정책연구 2019-02

대전 도시경관의 도시정체성 확보 방안

한상헌·양승희·염인섭

| | |
|-------------|--|
| 연구책임 | • 한상헌 / 미래전략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양승희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 염인섭 /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 | • 김지영 / 미래전략실 위촉연구원 |

정책연구 2019-02

대전 도시경관의 도시정체성 확보 방안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연구 요약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대전은 지역민의 출신성분이 지역별로 다양하고 타 지역에 비해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흥도시로서 그동안 과학도시, 교통중심도시, 행정기능도시 등 도시 정체성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었지만, 아직 도시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더욱이 이러한 작업들이 담론적 영역에서만 진행되었고, 도시경관과 같은 도시 기반 조성의 영역과는 융합되지 못함
- 따라서 대전의 도시정체성이 내포된 도시경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 본 연구는 대전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고려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대전시 경관이 조성되도록 특화된 정책과제를 발굴 및 제시하는데 목적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연구 보고서 및 논문, 통계 및 현황자료, 언론기사 등 검토
- 사례조사 : 도시정체성을 살려 경관을 조성한 선진국 및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대전 도시경관의 도시정체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
- 정책자문 : 도시경관조성 전문가와 문화적 도시재생 전문가에게 대전 도시경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연구결과

1. 국내외 도시정체성을 살려 경관을 조성한 우수사례

□ 해외 사례

① 미국 시애틀 : 역사문화의 보존과 커피문화 특화

- 오늘날 시애틀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하이테크 중심지이지만, 실리콘밸리에 비해 여유와 여가를 즐기는 성향이 있으며, 커피로 유명한 카페들이 밀집된 형태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음
- 한편, 시애틀은 미국에서 역사를 잘 보존한 도시로도 손꼽히며 시애틀의 파이오니아 광장이 대표적인 역사보존의 사례임
- 또한 시애틀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도시이며, 역사에 대한 존중과 보존을 통하여 개척자 정신과 개방적인 문화 가치를 중시해 옴
- 이 영향으로 시애틀 도심 근처 프리몬트 지역에 5m 높이의 ‘볼라디미르 레닌 동상’이 설치되어 있음. 이는 시애틀의 개방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사례임

② 일본 삿포로 :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인간 친화적 도시

- 삿포로는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스트레스 없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리드 패턴(grid pattern)으로 도시를 계획함
- 한편, 삿포로는 과거와 현대의 경관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대표적인 예로서 삿포로 시의 아카프라 광장, 삿포로 팩토리 등이 있음
- 삿포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일본의 정착민들에 의해 만들어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친절한 도시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외국 건축양식의 영향 받은 건축물이 남아있어 도시경관이 이국적임

③ 중국 난징 :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의 보존

- 1980년부터 난징 시는 과거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으로서 ‘난징 명성곽’의 보존에 주목하여, 1988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함. 이후 난징시는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및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노력
- 그 결과 난징은 명대(明代)의 도시 풍경을 유지하여 고도(古都)로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국내 사례

- ① 낙후 지역을 재생 사업으로 명소화
 - 최근 국내에서 낙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정체성을 강화한 국내 사례로 ‘수암골 벽화마을’, ‘등대오름길’, ‘동피랑 벽화마을’, ‘감천마을’ 등이 있음

- ② 역사와 전통을 살린 경관 조성
 - 도시의 역사적 유산과 유적, 그리고 전통의 보존과 활용은 도시에게 ‘다름의 정체성’을 제공하며, 이는 ‘도시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함.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역사와 전통을 살려 경관을 조성한 국내 사례로 ‘버그내순례길’, ‘부산포개항가도’, ‘첫 마중길’, ‘붉은벽돌 마을’, ‘종로’, ‘삼일대로’ 등이 있음

- ③ 상업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특화거리 활성화
 - 오늘날 각 지역마다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특화거리들이 조성되고 있음. 지역의 문화적 발전은 물론 경제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상업성이 조화를 이룬 특화거리가 활성화 되어야 함
 - 상업과 문화가 조화된 특화거리 활성화의 국내 사례로 ‘객리단길’, ‘연트럴 파크’, ‘7080 추억의 거리’,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등이 있음

2. 대전의 도시정체성과 경관자원

자연적·생태적 유산

- 대청호를 비롯해 대전의 3대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있음
- 주요 산으로는 식장산, 구봉산, 보문산, 계족산, 금병산, 갑하산, 금수봉 등이 있으며, 연봉을 이루며 시가지를 둘러싸여 있음
- 대전의 산지는 장대하지는 않으나, 대전의 주요 자연공원구역과 용도를 같이하며

지역 시민들의 주요 랜드마크(landmark)로서 기능하고 있음

- 주요 구릉지는 도시개발을 시행하다 경제성이 없어 버려 둔 산지가 구릉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최근까지 도시개발이 활발히 일어난 서구지역에 존재, 월평공원, 도안공원 등이 대표적 경관임

□ 문화적·역사적 유산

① 과학도시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 중심으로 과학도시 인프라가 경제적으로 파급되었고, 1993대전엑스포 등을 통해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확산

② 교통행정도시

-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대전으로 임시천도(1950.6.28~7.14)를 하였고, 대구로 옮겨질 때까지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또한 1996년에 통계청, 조달청을 비롯한 11개의 정부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은 행정도시로 자리하게 되었음
- 대전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대전역 신설을 기점으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음
- 또한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이며,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전국 어느 방향으로든 균등한 접근성이 확보됨

③ 역사문화경관

- 대전시는 보물10종, 사적1종 등 12종의 국가지정문화재와 52개의 유형문화재를 포함한 시·도지정문화재 178개를 합하여 총 190개의 지정문화재와 20개의 등록문화재를 보유함
- 대전 기존 도심은 1905년부터 경부선 대전역이 개통되면서 발전되었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존 도심의 역사는 대전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음
-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건축물은 관공서(충남도청), 금융기관(산업은행, 조흥은행 등), 관사주택류(충남도지사 공관 등), 기타(대전발전소) 등

④ 유교문화권

- 대전은 회덕과 진잠을 중심으로 향교와 서원 등 유교 사적이 다수 분포해있고, 송준길, 호연재 김씨, 박팽년, 김익겸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함
- 이 밖에 2011년 대전 유성구 금고동 안정나씨 종중 묘 이장 과정에서 발견되어 대전시립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조선시대 의복들, 함께 출토된 한글편지도 문화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유산임

⑤ 개혁과 우국충정

- 대전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대표적 지식인 '신채호'와 조선말기의 유학자이자 순국지사인 '송병선' 등의 생가 등 역사적 유산이 산재

⑥ 선사유적

- 구석기 시대 유적 : 구즉동 유적, 용호동 유적, 용산동 유적, 둔산동 유적
- 신석기 시대 유적 : 둔산동 유적, 송촌동 유적
- 청동기 시대 유적 : 구성동 유적, 괴정동 유적, 궁동 유적
- 초기철기시대 유적 : 자운동·추목동 유적, 구성동 유적

□ 대전의 대표적 랜드마크와 도시 경관 전략 사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 염인섭(2018)의 대전시 랜드마크 조성 관련 기본계획을 참고해 각각의 랜드마크들의 정체성 특성들을 묶어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화를 설정

- 첨단과학도시 : 엑스포공원
-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도시 : 유성온천, 보문산, 대청(댐)호, 한밭수목원, 오월드, 계족산,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갑천
- 교통중심도시 :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중앙로
- 유교문화도시 : 동춘당공원, 뿌리공원, 우암사적공원, 회덕향교, 이사동
- 근대문화도시 : 중앙시장, 옛 충남도청, 대흥문화예술의 거리, 중앙로

- 전술한 다섯 가지 유형 가운데,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도시’를 제외한 네 가지 유형은 대전 도시정체성의 중심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어, 도시경관조성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전이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스토리에 현재 대전의 속성에 따라 첨가되는 정체성 요소들이 있어, 다음 3가지 유형의 도시정체성을 도시 경관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추가할 수 있음
 - 교통중심도시는 대전에 있는 정부3청사와 인근에 있는 세종시의 영향으로 ‘교통중심·행정기능도시’로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음
 - 유교문화도시는 단재 신채호, 송병선 등의 우국 선열의 흔적이 포함된 ‘유교문화·우국충절도시’로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음
 - 여기서 전술한 도시정체성의 요소들이 탄력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문화나 유입 인구에 개방적인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마치 샬러드 볼 같은 특성을 보여 ‘샬러드 볼 도시’로서 정체성도 추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대전의 5가지 도시정체성은 ‘첨단과학도시’, ‘근대문화도시’, ‘교통중심·행정기능도시’, ‘유교문화·우국충절도시’, ‘샬러드 볼 도시’로 유형화가 가능함

3. 대전 도시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관 조성 사업 제안

‘첨단과학도시 대전’ 전략사업 : 사이언스 스트리트

- ①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과학문화 공간 조성
 - KAIST 후문 쪽에 대학과 각 연구기관들이 연계된 벤처공간·창업공간 구성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근을 다윈 진화론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공간으로 활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대전시민천문대 구간은 항공우주 체험공간으로 조성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을 위한 활동 공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창업 공작소를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업 및 IT 창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구성
 - 도룡동-국립중앙과학관까지 과학체험거리 조성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AIST,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에 이어지는 '탄동천 자연산책로'를 연계하여 활용

②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 '탄동천 자연산책로' 곳곳에 저명한 과학자를 상징하는 동상, 벤치, 과학 발명품, 과학체험을 위한 조형물, 예술 창작품과 과학예술 융합작품 등을 전시
-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

③ '꿈돌이'와 '한꿈이' 캐릭터를 활용한 거리조성

- 사이언스 스트리트 전체에 꿈돌이와 한꿈이 캐릭터를 활용하되 각 기관 및 시설의 특색을 살려 캐릭터를 응용하여 간판, 배너, 가로등, 맨홀 등에 활용

④ 사이언스 스트리트 안내서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

- 사이언스 스트리트 내 연구기관 및 시설의 위치, 정보 및 특징, 개방시간, 그리고 스트리트 내에 행해지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망라해놓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 '교통중심 및 행정기능도시 대전' 전략사업 1 : 철도역사거리

○ 대전의 철도역사가 남겨진 대전역과 인근의 소제동까지 '철도역사거리' 조성

① 철도 관련 문화재 보존

- '철도관사촌'이나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 보급창고' 등의 보존뿐만 아니라, 대전의 교통 및 철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음악극, 연극, 전시회, 근대유산투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활동과 아카이빙 사업을 활성화해야 함

② 대전역을 랜드마크로 조성

- 대전의 철도역사와 관련된 조형물 설치, 야간 조경 및 안내표지판 정비, 대전의 철도문화와 관련된 디자인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경관 정비

③ 대전철도축제

- 대전에서도 철도축제를 개최하여 기차여행 프로그램, 대전의 철도이야기, 과학문화와 융합한 체험프로그램, 전시행사, 공연,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함. 특히 대전역 인근에 있는 우송대와 연계하여 철도문화아카데미, 철도관련 직업체험 행사도 개최하면 보다 유익할 것임

□ '교통중심 및 행정기능도시 대전' 전략사업 2 : 칼국수거리

- 대전에는 많은 칼국수 가게들이 대전역 인근에 분포함. 따라서 대전역 인근에 '칼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해야함. 특히, 대전역 주변에 있는 역전시장을 비롯하여 중부시장, 중앙종합시장, 자유도매시장, 국제시장등과 연계하여 칼국수거리를 조성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전역 인근 칼국수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방향
 - 공모전을 통해서 칼국수거리를 상징하는 심벌을 공모
 - 대전의 역사와 관련 있는 칼국수의 역사를 보기 쉽게 나타낸 안내판 설치
 -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칼국수 축제 활용

□ 근대문화도시 대전 전략 사업 1 : 이응노 화백 브랜드화

① 이응노 작품 디자인을 '퍼블릭아트'로 구현

-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퍼블릭 아트(public art)로 구현하여, 거리설치물(street installation)이나 가로등 디자인, 지하철 역사 벽화, 또는 오래된 아파트 새로 도색 필요한 곳에 활용

② 작품 속 등장인물 되어보기

- 예를 들어 이응노 화백의 <군상>을 큰 사이즈의 벽화로 재구성하여, 해당 작품 속의 사람이 취하고 있는 포즈와 같은 모양으로 빈 공간을 표시해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자신을 맞춰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그림 속 군중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근대화도시 대전 전략 사업 2 : 선화동 스토리텔링 골목길

① 근대화유산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

- 근대화유산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상연하여, 보다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근대화유산도시로서 대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

② 근대화유산의 개성을 살린 보도 개선

- 각 근대문화의 상징성 및 특징을 잘 표현하는 디자인들로 특색 있게 개선

③ 벽화

- 선화동의 오래된 계단, 외벽, 오래된 주택에 대전의 근대화유산과 관련된 스토리를 관련하여 꾸미거나 대전의 옛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벽화를 조성

□ 유교문화 및 우국충절도시 대전 전략 사업 : 충효문화탐방로

- 박팽년선생유허비, 우암사적공원, 문충사, 인동장터, 뿌리공원, 그리고 신채호선생생가를 중심으로 '충효문화탐방로'를 조성

① 박팽년선생유허비

- 외벽 담장에 박팽년의 업적과 관련된 스토리벽화나 액자를 전시하고, 무단 주차 및 쓰레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담장 옆에 보도블록을 설치함
- 또한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 명소로소도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유허비 앞에 잔디밭 공간을 박팽년을 기리는 행사나 예술 공연장소로 활용
- 인근 도로에 박팽년선생유허비 위치를 안내해주는 선을 표시

② 우암사적공원

- 우암사적공원 내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 속에 담겨진 스토리와 연계된 탐방로를 조성 및 활용

③ 태극기 로드 조성: 문충사-인동장터

- 인동장터 인근에 독립기념비 및 독립기념전시관 건립
- 문충사에 송병선·송병순 형제를 비롯하여 외세에 항거했던 애국지사들의 업적 및 정보가 담긴 '키오스크(KIOSK)' 안내시스템을 도입
- 문충사-인동장터 곳곳에 태극기나 독립운동관련 인물, 문구 등이 그려진 이미지 조명(그림자 조명) 설치

④ 충과 효를 대표하는 공원 조성: 뿌리공원-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

- 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를 역사문화경관과 자연경관이 융합된 '단재산림공원'으로 조성
- 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를 대전의 충을 대표하는 '단재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고, 효를 대표하는 기존의 '뿌리공원' 간의 관광코스로 연계한다면, 나아가 대전 충효공원 축제도 함께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샐러드 볼 도시 대전 전략 사업 1 : 대전 글로벌 컬처 존

① 에듀케이션 존

- 기존의 다문화 지원시설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에듀케이션 존' 형성
- 다국어로 된 안내판 및 이정표를 제공하고, 보도유도 라인을 형성
- 에듀케이션 존을 상징하는 조형물 조성, 다문화 시설 안내지도 제작
- 보도블록에 각 나라의 국기나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디자인
- 다문화 지원시설 인근에 잔디밭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공간 조성

②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

-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연계한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 조성
- 다국어로 된 안내판 및 이정표 제공, 보도유도 라인 형성, 그리고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을 상징하는 조형물 조성 및 안내지도 제작
- 현재 대전 엑스포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와 연계하여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을 특별행사 개최지로 활용

□ 셸러드 볼 도시 대전 전략 사업 2 : 로봇문화거리

- 마니아, 팬덤, 오타쿠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즐기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대학가인 한밭대 입구 쪽에 '로봇문화거리'를 조성
- 또한 한밭대 인근 '송숲근린공원'과 '생각꾸러미공원'을 '로봇 문화 체험 존'으로 활용
- 로봇문화거리를 조성할 때, 단순히 과학발명품이나 로봇, 드론 등을 파는 가게나 체험 장소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거리 곳곳에 로봇문화거리임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과 이정표 및 안내판, 배너 등이 조성되어야 함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경관 사업 제안

1 첨단과학도시 대전

- 사이언스 스트리트

2 교통중심 및 행정기능도시 대전

- 철도역사거리
- 칼국수거리

3 근대문화도시 대전

- 이응노 화백 브랜드화
- 선화동 스토리텔링 골목길

4 유교문화 및 우국충절도시 대전

- 충효문화탐방로

5 셸러드 볼 도시 대전

- 대전 글로벌 컬처 존
- 로봇 문화 거리

차 례

| | |
|-----------------------------------|-----|
| 1장 서론 | 1 |
| 1. 연구 개요 | 3 |
| 2. 연구 범위와 방법 | 4 |
| 2장 도시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의 모범 사례 | 7 |
| 1. 도시경관과 도시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 9 |
| 2. 해외 주요 모범 사례 | 11 |
| 3. 국내 사례 | 20 |
| 3장 대전의 도시정체성과 경관자원 | 33 |
|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35 |
| 2. 대전의 경관자원 | 42 |
| 4장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경관 사업 제안 | 63 |
| 1. 첨단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경관 | 65 |
| 2. 교통과 행정의 기능을 각인하는 도시경관 | 73 |
| 3. 근대 역사의 경험을 기억하는 도시경관 | 82 |
| 4. 우국충절과 유교문화를 기리는 도시경관 | 91 |
| 5.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선도하는 도시경관 | 99 |
| 참고문헌 | 108 |

표 차례

| | |
|---|-----|
| 표 1-1. 연구 절차 | 5 |
| 표 3-1. 대전시 대덕특구 연구인력 학력별 현황 | 48 |
| 표 3-2. 대전시 대덕특구 연구기관 현황 | 48 |
| 표 3-3. 대전시 문화재 현황 | 50 |
| 표 3-4. 대전의 핵심 랜드마크 20곳의 '정체성 요소' 및 '스토리 유형화' 분류 | 60 |
| 표 4-1. 권역별 국내인구이동통계 | 99 |
| 표 4-2. 주민등록 전입지별 인구이동(대전←타시도) | 99 |
| 표 4-3. 주민등록 전출지별 인구이동(대전→타시도) | 99 |
| 표 4-4. 대전시 소재 다문화 지원 시설 및 연구기관 | 102 |

그림 차례

| | |
|---|----|
| 그림 2-1. 세계 도시화 비율을 나타낸 지도(2015년 기준) | 9 |
| 그림 2-2. 시애틀 캐피톨 힐에 위치한 카페 | 11 |
| 그림 2-3. 파이어니아 광장(1917년 모습) | 12 |
| 그림 2-4. 시애틀의 파이오니아 광장에 위치한 지하 공간화 된 도심 경관 | 13 |
| 그림 2-5.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 올림픽 조각공원 | 14 |
| 그림 2-6. 레닌 동상 | 15 |
| 그림 2-7. 샷포로 시의 그리드 패턴 도시 계획 | 16 |
| 그림 2-8. 키타3조 광장(아카프라) / 샷포로 팩토리 | 17 |
| 그림 2-9. 구 훗카이도청과 샷포로 시계탑 | 18 |
| 그림 2-10. 난징 명성관 | 19 |
| 그림 2-11. 벽화에 그려진 수암골 골목지도 / 수암골 벽화마을 전경 | 20 |
| 그림 2-12. 목호항 등대오름길 전경 | 21 |
| 그림 2-13. 알록달록한 감천문화마을 전경 / 어린왕자 포토존 | 22 |
| 그림 2-14. 통영과 관계가 깊은 이순신 장군을 그린 벽화 | 23 |
| 그림 2-15. 버그네순례길 | 24 |

| | |
|--|----|
| 그림 2-16. 부산포개항가도 투어 코스 중 - 역사스토리 골목 | 25 |
| 그림 2-17. 서울시 성수동 붉은 벽돌마을 | 25 |
| 그림 2-18. 전주시 첫 마중길 | 26 |
| 그림 2-19. 대청마루 문양 배열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동대문 성곽 공원 앞 | 27 |
| 그림 2-20. 삼일대로 7개 핵심거점 | 28 |
| 그림 2-21. 3.1운동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성한 타임라인 바닥판 | 29 |
| 그림 2-22. 전주시 객리단길 | 30 |
| 그림 2-23. 서울시 연남동 연트럴 파크 | 31 |
| 그림 2-24.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 31 |
| 그림 2-25. 경주시 추억의 거리 | 32 |
| 그림 3-1. 대전광역시의 입지여건 | 35 |
| 그림 3-2. 대전광역시 변천과정 | 36 |
| 그림 3-3. 대동여지도의 대전과 1930년대 대전 전경 | 37 |
| 그림 3-4. 대전시의 8경 | 39 |
| 그림 3-5. 시민인식조사 - 대전의 관광지과 대전의 행사 축제 | 41 |
| 그림 3-6. 대전시 하천 현황 | 43 |
| 그림 3-7. 대전의 주요 산 | 46 |
| 그림 3-8. 대전시 산지 및 구릉지 현황 | 47 |
| 그림 3-9. 대전시 문화재 현황도 | 50 |
| 그림 3-10. 대전시 근현대문화유산 | 51 |
| 그림 3-11. 호연재 김씨의 시비 / 소대현·호연재 고택 | 52 |
| 그림 3-12. 대전의 선사 유적 | 55 |
| 그림 3-13. 대전의 청동기 시대 유적 | 56 |
| 그림 3-14. 구성동 유적 | 58 |
| 그림 3-15. 대전 도시 경관의 전략 사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 62 |
| 그림 4-1. 대덕특구 4대 특화분야 | 65 |
| 그림 4-2. 대전시 소재 첨단과학 연구기관 및 시설 | 66 |
| 그림 4-3. 사이언스 스트리트 구성안 | 69 |
| 그림 4-4. 밀레니엄 공원의 '구름의 문' | 71 |
| 그림 4-5. 한꿈이와 꿈돌이 캐릭터 응용 | 72 |
| 그림 4-6. 대전시의 지역간 접근성 | 73 |

| | |
|--|-----|
| 그림 4-7. 충청권 광역철도망 | 74 |
| 그림 4-8. 소제호가 표시된 옛 지도 | 75 |
| 그림 4-9. 철도역사거리 | 76 |
| 그림 4-10. 대전역 서광장의 ‘꽃시계’ / 동광장의 ‘호국철도 기념동상’ | 78 |
| 그림 4-11. 의왕철도축제 / 대전 철도영화제 홍보 포스터 | 79 |
| 그림 4-12. 대전역 근처 칼국수 가게분포 | 80 |
| 그림 4-13. 칼국수거리 | 81 |
| 그림 4-14. 이응노미술관 전경 | 83 |
| 그림 4-15. 이응노 화백 작품 | 84 |
| 그림 4-16. 이응노 그림을 벽화로 꾸민 지하철역 예시 안 | 85 |
| 그림 4-17. 이상화 초상화가 그려진 대구 궁전맨션의 ‘아파트 그래픽스’ | 85 |
| 그림 4-18. 이응노 선생의 그림과 포즈 참여존 예시 안 | 86 |
| 그림 4-19. 옛 충남도청사 야간 경관조명 | 88 |
| 그림 4-20. 공산성 미디어 파사드 공연 | 88 |
| 그림 4-21. 근대문화탐방로 바닥명판 | 89 |
| 그림 4-22. 일본 맨홀뚜껑 | 90 |
| 그림 4-23. 충효문화탐방로 | 92 |
| 그림 4-24. 박팽년선생유허비 도시경관 개선 예시 안 | 93 |
| 그림 4-25. 남간정사 | 94 |
| 그림 4-26. 우암사적공원 항공사진 | 95 |
| 그림 4-27. 송병선·송병순 동상 / 문충사 | 95 |
| 그림 4-28. 3.16 독립만세운동 기념 조형물 | 96 |
| 그림 4-29. 그림자 조명 | 97 |
| 그림 4-30. 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 /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 | 98 |
| 그림 4-31. 다산생태공원 안내도 | 98 |
| 그림 4-32. 서래로의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보드블록 | 102 |
| 그림 4-33. 한민시장 다문화 음식특화거리 전경 | 103 |
| 그림 4-34. 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 | 104 |
| 그림 4-35. 일본의 오타쿠 문화 중심지 ‘아키하바라 거리’ | 105 |
| 그림 4-36. 로봇공원 | 106 |
| 그림 4-37. 로봇 문화 거리와 체험존 | 107 |

서 론

1. 연구 개요
2. 연구 범위와 방법

1장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대전은 지역민의 출신성분이 지역별로 다양하고 타 지역에 비해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흥도시로서 그동안 과학도시, 교통중심도시, 행정기능도시 등 도시 정체성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었지만, 아직 도시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더욱이 이러한 작업들이 담론적 영역에서만 진행되었고, 도시경관과 같은 도시 기반 조성의 영역과는 융합되지 못함
- 이러한 이유로, 대전의 도시경관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투영되지 못한 채 맥락 없는 난개발이 계속되었고, 도시민의 문화적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존재함
-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타 도시에서는 이미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 정책과 중장기정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의 도시정체성이 내포된 도시경관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

2) 연구 목적과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대전의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고려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대전시 경관이 조성되도록 특화된 정책과제를 발굴 및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물론, 대전의 도시재생사업, 문화정책 사업 등 타 분야 정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그리고 다른 시와 차별화되는 대전만의 도시정체성이 담긴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 대전의 도시정체성과 경관자원 조사

- 대전시의 연혁과 지리적·사회적 특성과 대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
- 대전의 자연적·생태적 유산과 문화적·역사적 유산 조사
- 대전의 핵심 랜드마크 20곳에 대한 '정체성 요소' 및 '스토리 유형화' 분류

○ 도시정체성을 살려 경관을 조성한 국내·외 모범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외 주요 모범 사례로 미국 시애틀, 일본 삿포로, 중국 난징을 조사·분석
- 국내 사례는 ①낙후 지역을 재생 사업으로 명소화한 사례, ②역사와 전통을 살린 경관 조성 사례, ③상업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특화거리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경관 사업을 제안

- 대전을 상징하는 주요 정체성 5가지(①첨단과학도시, ②교통중심 및 행정기능도시, ③근대문화도시, ④유교문화 및 우국충절도시, ⑤샬러드 볼 도시)에 따른 도시경관 사업을 제안

2) 연구 방법과 절차

○ 문헌조사

- 현 대전시 도시경관 제도 검토(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연계 및 관련자료 활용), 연구 보고서 및 논문, 통계 및 현황자료, 언론기사 등 검토 및 분석

○ 사례조사

- 선진국 및 타 시도의 도시정체성을 살려 경관을 조성한 우수사례를 조사 및 분석
- 이를 통해 대전 도시경관의 도시정체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치마킹

○ 정책자문

- 도시경관조성 전문가와 문화적 도시재생 전문가에게 대전 도시경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①연구방법·절차 검토 회의, ②기존 연구 및 선진 사례 조사, ③대전의 도시경관 특성 연구, ④전문가 정책 자문, ⑤정책 발굴, 그리고 ⑥연구결과 홍보·제언 수렴으로 진행됨

표 1-1. 연구 절차

| 연구 절차 | 2018 ----- 2019 | | | | | | | | | | | | |
|----------------------------|-----------------|---|---|---|---|---|---|---|----|----|----|---|--|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
| 연구방법·절차 검토 회의 | | | | | | | | | | | | | |
| 기존 연구 및 선진 사례조사 | | | | | | | | | | | | | |
| 대전의 도시경관 특성 연구 | | | | | | | | | | | | | |
| 전문가 정책 자문(2018.10.23.) | | | | | | | | | | | | | |
| - 연구방향 및 연구과정 검토 | | | | | | | | | | | | | |
| - 대전의 도시정체성의 특성과 도시경관의 실태 | | | | | | | | | | | | | |
| -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 조성 방안 | | | | | | | | | | | | | |
| 정책 발굴 | | | | | | | | | | | | | |
| 연구결과 홍보·제언 수렴 | | | | | | | | | | | | | |

도시정체성을 살린 경관 조성의 모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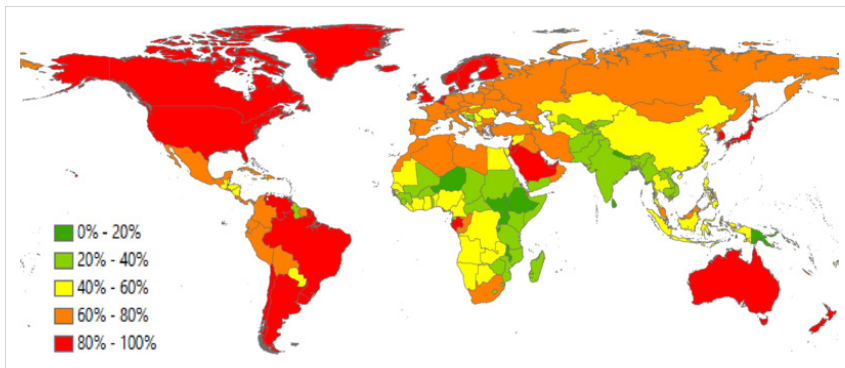
1. 도시경관과 도시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2. 해외 주요 모범 사례
3. 국내 사례

2장

1. 도시경관과 도시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 UN에서는 도시화가 인간 거주지의 경관을 변화시키고, 세계 다른 지역의 개발과 환경, 그리고 생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봄(UN 홈페이지 참고)
-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는 더 많은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 환경 및 경관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게 됨. 그 결과, 도시의 자연 및 문화 경관 자원은 도시 거주지의 안과 주변에서 계속 압박을 받게 됨. 생태적 지속가능성 문제 외에도, 도시 지역의 확장, 도시 인구의 증가,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감소는 도시 경관의 이미지와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Isil Kaymaz, 2013)

그림 2-1. 세계 도시화 비율을 나타낸 지도(2015년 기준)



자료: 위키피디아(인도네시아 판) “2015 World Urbanization Map” 검색(2018.09.19).

- UN Habitat 사무총장인 후안 클로스(Joan Clos, 1949~)는 1996년 Habitat II 회의 이후 20년 동안 세계의 도시 지역에 인구가 모여 들었고, 이는 많은 사회·경제적 성장을 수반하였지만,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경관이 변화되었다고 봄. 따라서 도시화에 대한 응집력 있고 현실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6년 Habitat III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통해 도시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UN Habitat 홈페이지 참고)

- 2016년 Habitat III에서 채택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개방적이고, 다용도적이며,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접근성 높고,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공공공간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효과적으로 분포된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인간정주 및 도시경관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봄(United Nations, 2016)
-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세계지방정부연합)의 「문화 21 실천(Culture 21 Action, 2015)」에서는 ‘문화, 도시계획, 공공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도시 및 지역경관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도시 내 거리·광장 등 공공공간을 문화적 상호작용과 참여의 핵심자원으로 인식하며, 상징적이고 공공재로서 고려되는 공공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봄. 또한 공공미술(public art)의 개발과 보전을 판촉 및 관리해야하며, 문화와 결합된 국가와 지역의 건축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보았음(UCLG, 2015)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¹⁾는 오늘날 도시의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나,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문화적이고 이질적이게 만들었으며, 이는 도시 환경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오늘날의 도시는 국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 및 디자인 양식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음(Brabec E., 2004; Isil Kaymaz, 2013)
- 세계화와 도시화는 도시의 경관의 변화와 도시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 여러 도시들에서 그 도시만의 정체성이 내포된 도시경관을 구현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도시경관을 조성·보존·활용하는 것이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전시와 자매도시인 미국의 시애틀과 일본의 삿포로, 그리고 중국의 난징 등이 도시 경관을 통한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함. 이는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됨(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2018.09.17. 검색)

2. 해외 주요 모범 사례

1) 미국 시애틀 : 역사문화의 보존과 커피문화 특화

(1) 하이테크와 커피문화의 중심지

- 오늘날 시애틀은 실리콘벨리에 버금가는 하이테크 중심지로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나 아마존(amazon) 등 세계적인 하이테크 기업이 설립되어 있음
- 실리콘벨리는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된 삭막한 분위기인 반면, 시애틀은 상대적으로 여유와 여가를 즐기는 성향이 있으며, 이런 특징이 특유의 카페 문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모종린, 2016). 시애틀은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 1호점이 위치해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커피 회사 본사들이 입점해 있음

그림 2-2. 시애틀 캐피톨 힐에 위치한 카페



자료 : 구글 “Star Bucks Seattle”, “Victrola Coffee”, “Stumptown Coffee”, “Top Pot Coffee” 검색(2018.09.19.).

- 시애틀은 커피로 유명한 카페들이 밀집된 클러스터들이 존재함. 그 중 캐피톨

힐(Capitol Hill)이 대표이며 ‘커피의 성지’로 꼽힘

- 캐피톨 힐에는 비바체, 빅트롤라 커피, 탑 팻 커피, 카페 비타, 스텝프타운 커피, 블랙 커피, 카페 페티로즈, 오드 펠로우즈 카페 등이 집결(신정엽, 2015)
- 또한 테라스 등에서 다양한 커피를 마시는 경관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시애틀의 연중 날씨가 춥지 않아 야외활동에 큰 지장이 없어 시민들이 거리나 이동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며, 젊고 다양한 시민들이 활력 있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시애틀을 커피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신정엽, 2015)

(2) 역사문화의 보존

- 초기 시애틀은 목재, 무역, 알래스카 금 채굴과 같은 광업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시애틀의 도시화에 기여함
- 시애틀의 ‘파이오니아 광장(Pioneer Square)’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공간은 1889년에 일어난 대화재 이후 파괴되었음. 그러나 이 대화재(大火災)는 이후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됨

그림 2-3. 파이어니아 광장
(1917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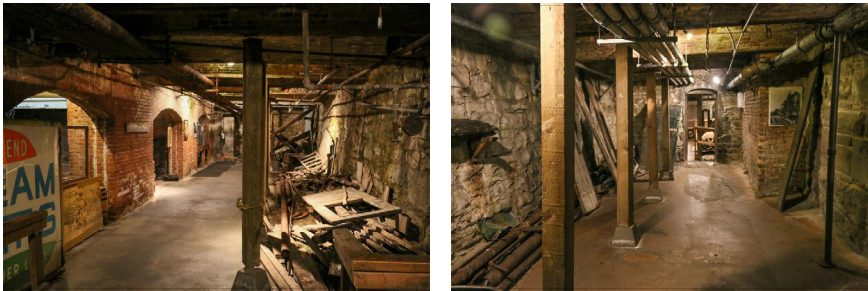
자료 : 위키피디아(한국판) “Pioneer Square”

- 시애틀 도심이 간석지에 조성되어 파이오니아 광장은 상습적인 침수와 계속해서

하수처리 문제로 큰 불편을 겪었지만, 대화재를 계기로 이를 개선하게 되었고, 이전의 목조 건물에서 석조 건물로 재건하여 화재를 방지하게 됨. 그리고 신규 도로를 기존보다 고도가 높도록 건설하여 기존 건물의 2층과 연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됨. 또한 도시를 재건하면서 도로와 건물을 기존보다 3m 정도 높이 지으면서 지하공간이 드러났고, 그 일부가 파이어니어 광장 주변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시애틀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음(신정엽, 2015 ; 박혜령, 2017.10.29.)

- 이를 통해 시애틀은 미국에서 역사를 잘 보존한 도시로 손꼽히며 시애틀의 파이어니어 광장이 대표적인 역사보존의 사례임. 또한 ‘파이어니어 빌딩(Pioneer Building)’은 1889년에 일어난 큰 화재 직후 잿더미 위에 지어진 건물로 파이어니어 광장의 랜드마크임. 시애틀 시 정부가 파이어니어 광장에서 역사 자원으로 지정한 건물과 공간은 무려 60개이며, 이는 광장 전체가 역사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다름없음. 또한 이 광장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 정부의 재개발 계획을 거부한 시애틀 시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음(모종린, 2014)

그림 2-4. 시애틀의 파이어니어 광장에 위치한 지하 공간화 된 도심 경관



자료 : flickr “Pioneer Square Underground” 검색(2018.09.19.).

- 시애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은 시애틀의 농산물 직거래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1960년대에 재래시장 철거의 대규모 재개발계획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 커뮤니티와 상인조합의 반대로 철거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 공간 중 하나임(손동욱, 2007)

그림 2-5.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 올림픽 조각공원



자료 : wikimedia commons “Pike Place Market” / 시애틀박물관 홈페이지

- 또한 시애틀 시가 주도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쇠락한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재개발한 사례로 ‘올림픽 조각공원(Olympic Sculpture Park)’이 있음
- 이 조각공원은 산업화 시대 이전처럼 교통 기반시설을 사이에 두고 단절되었던 도시와 수변공간을 다시 이어주었고, Z자 형태의 이 공원의 지형은 수변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새로운 보행자 도로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고, 관람객들은 지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함(윤수미·김연정, 2010)

(3) 개방적 도시로 특성화

- 19세기 ‘알래스카의 길목’으로 불렸던 시애틀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도시이며, 역사에 대한 존중과 보존을 통하여 개척자 정신과 개방적인 문화 가치를 중시해 옴(모종린, 2014).
- 시애틀은 자본주의 상징인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애틀 도심 근처 프리몬트(Fremont) 지역에 5m 높이의 공산주의 혁명가인 ‘볼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동상’이 설치되어 있음. 이는 시애틀의 개방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사례라 볼 수 있음
- 레닌 동상은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포프라드(Poprad)²⁾ 시에 건립됐었으나, 1989년 공산당 붕괴이후 철거되었으며 루이스 카펜터(Lewis Carpenter)가 1993년 포프라드를 여행하다가 현지의 한 고철 야적장에서 이를 발견하여 시에

2) 현재는 슬로바키아 도시임

틀로 옮겨옴. 그러나 이 동상의 공공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던 중 카펜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조각가 친구인 피터 베비스(Peter Bebbis)가 2년 후 프리몬트 지역에 설치하게 됨(Seattle Local News, 2017.06.12.)

- 시애틀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시애틀의 프리몬트 지역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찾게 명소가 됨

그림 2-6. 레닌 동상



자료 : flickr "Lenin Statue in Sea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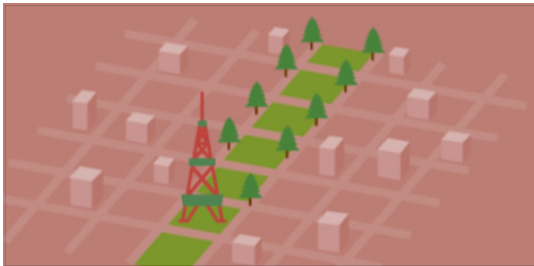
- 시애틀은 20세기 초반 미국 공산주의의 집결지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이 높은 도시임. 그리고 시애틀과 시애틀이 속해있는 워싱턴 주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동양인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이자, 시애틀은 미국에서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인 도시임
- 2018년 기준, 시애틀의 백인 인구 비율은 65.7%이고, 아시아계 인구 비율은 14.1%인 반면, 흑인 인구 비율은 7.1%, 히스패닉계 비율은 6.3%임(Statistic Atlas 홈페이지 참고)
- 시애틀은 미국에서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인 도시로서, Seattle Times 기사에 의하면 2006년 시애틀의 동성애 인구는 시애틀 시민의 12.9%인 57,900명으로, 미국 50대 대도시 중 2위를 차지함(신정엽, 2015).
- 이를 통해 시애틀은 타 도시에 비해 정치, 인종, 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인 문화가 도시의 경관 속에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2) 일본 삿포로 :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인간 친화적 도시

(1) 인간 친화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라이프(Stress-free life)를 위한 도시

-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었던 ‘차도(車道)’를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 공간을 지자체가 자주적 광장조례를 제정하여, 바탕으로 차량이동을 막고, 광장화하여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홋카이도 삿포로시 기타3쵸 광장’임(송준환, 2018)
 - 기타3쵸 광장은 ‘아카프라(AKAPLA)’라고도 불리며, 한때 ‘기타3쵸도로’로서 차량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도를 광장화하였음. 이를 통해 삿포로 도심의 공공공간을 창출하였고 보다 인간 친화적이며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됨
- 삿포로는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스트레스 없는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하여 쇼핑 시설과 교통 기능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함
 - 이를 위해 ‘그리드 패턴’으로 계획되고 관리된 도심 지역은 아름답고 신선한 도시의 거리 풍경을 제공. 폭 넓은 거리는 시민들이 다니기에 혼잡하지 않게 함. 도시의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시 중심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지하 쇼핑몰과 산책로는 사람들이 비나 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함(삿포로 시 글로벌 홈페이지)

그림 2-7. 삿포로 시의 그리드 패턴 도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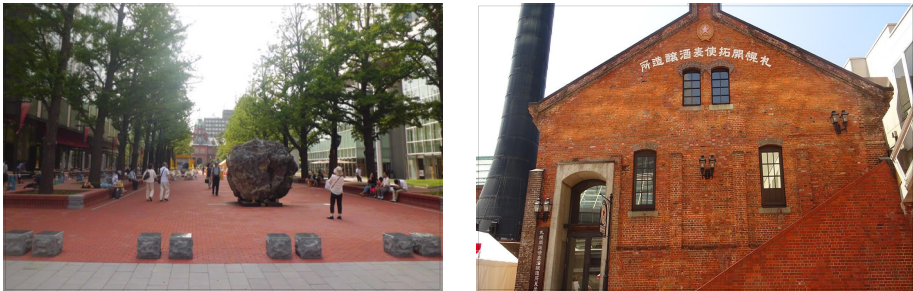


자료 : 삿포로 시 글로벌 홈페이지.

(2) 과거와 현대의 경관이 공존하는 도시

- 삿포로 시의 아카프라 광장은 1925년에 32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현재 29그루가 남아있고, 1924년에 구성된 목피포장도 보존되어 있음. 과거 식재된 은행나무와 목피포장이 지금까지 보존된 가치를 인정받아 삿포로를 대표하는 도로경관 ‘삿포로향토와 문화100선(1988년)’으로 선정됨. 그리고 남아 있는 도로경관들을 보존하고, 그 위에 빨간벽돌을 부설하는 형태로 광장을 정비했으며, 기존의 은행나무 뿌리를 육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빨간 벽돌로 식재 틀을 쌓아, 이 식재 틀이 광장의 벤치 역할을 함(송준환, 2018)

그림 2-8. 기타3쵸 광장(아카프라) / 삿포로 팩토리



자료 : wikimedia commons “Sapporo Kita3-Jo” / 삿포로 팩토리 홈페이지

- ‘삿포로 팩토리(sapporo factory)’는 1876년 지어진 지역 최대의 삿포로 맥주 공장이자, 일본 맥주 산업의 발상지였으나, 도심 구조가 바뀌면서 불합리한 입지공간으로 전락하자, 삿포로 시에서 1993년 상업문화시설로 변모시킴. 다이쇼 시대에 만들어진 벽돌건물과 검은 큰 굴뚝이 삿포로 팩토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맥주공장 굴뚝과 건물을 그대로 살리고, 현대식 건물과 연결해 문화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음(삿포로 팩토리 홈페이지 참고; 이광표, 2010.01.27.).

(3) 이방인에게 친절한 문화와 이국적인 도시 경관

- 1869년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많은 외국 엔지니어들이 홋카이도에 초대됨.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서구의 지식과 경험을 일

본 근대화에 사용할 수 있었음. 따라서 삿포로는 홋카이도 토착민과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의 문화를 보존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지식과 지혜를 적용함으로써 개발된 도시임. 또한 삿포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일본의 정착민들에 의해 만들어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친절한 도시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외국 건축양식의 영향받은 건축물이 남아있어 도시경관이 이국적임(General Affairs Bureau, City of Sapporo, 2014)

- 미국 네오바로크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구 홋카이도청은 250만 개의 빨간 벽돌로 지어져 ‘아카렌가(일본어로 빨간 벽돌이란 뜻임)’라는 애칭을 가짐. 또한 구 홋카이도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삿포로 시계탑은 아카렌가와 더불어 삿포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지어진 지 100년이 지났지만 미국 건축양식의 목조건물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김소운, 2017.05.28.)

그림 2-9. 구 홋카이도청과 삿포로 시계탑



구 홋카이도청



삿포로 시계탑

자료 : 위키피디아(일본판) “北海道庁旧本庁舎” 검색; wikimedia commons “Sapporo Clock Tower Hokkaido Japan” 검색(2018.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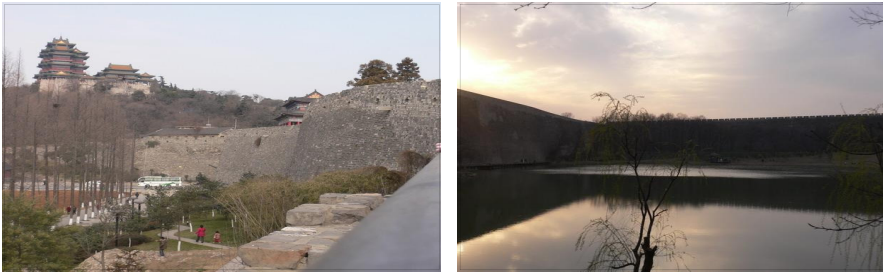
3) 중국 난징 :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의 보존

- 중국 난징 시의 ‘난징 명성곽’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임. 1980년부터 난징 시는 과거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으로서 난징 명성곽의 보존에 주목하게 되었고, 1988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난징 시는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및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노력함. 그 결과 난징은 명대(明代)의 도시 풍경을 유지하여 고도(古都)로서 역사문

화적 가치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음(류호철, 2013)

- 난징시는 도시의 역사문화를 살리기 위해 1991년 〈난징도시총계획, 1991-2010〉을 수립하였고, 1992년에는 성곽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지형 일체를 보호하는 〈난징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을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난징명성곽관광대계획〉이 수립됨. 이러한 계획들은 문화유산 보호는 물론, 주변 자연 지형 보호와 구도심 환경 제고와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도시 경관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가져옴

그림 2-10. 난징 명성곽



자료 : wikimedia commons “南京明城墙” 검색(2018.09.20.).

3. 국내 사례

1) 낙후 지역을 재생 사업으로 명소화

- 최근 국내에서 낙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은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고,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시정체성이 담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보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그런데 이때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통적 가치를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도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도시특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정체성을 강화한 국내 사례로 ‘수암골 벽화마을’, ‘등대오름길’, ‘동피랑 벽화마을’, ‘감천마을’ 등이 있음

(1) 충북 청주시 ‘수암골 벽화마을’

- 수암골 벽화마을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7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동네는 활기를 되찾은 사례임
- 그러나 당초의 '벽화'보다는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가 더 활성화되고 있음

그림 2-11. 벽화에 그려진 수암골 골목지도 / 수암골 벽화마을 전경



○ 강원 동해시 묵호항 ‘등대오름길’

- 묵호항 등대오름길은 묵호등대를 오르는 벽화 길로, ‘논골담길 프로젝트’³⁾ 이후 새로운 벽화 길로 재탄생됨
- 논골담길에는 매일 새벽 명태와 오징어를 가득 실어 나르는 어선들로 활기를 띠었던 묵호항을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재밋는 벽화로 그려져 지역의 원형(어촌주민의 삶)과 스토리텔링을 연계해서 조성됨(조경환, 2018.05.09.)

그림 2-12. 묵호항 등대오름길 전경



(2) 부산시 ‘감천마을’

- 부산시의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 유산’이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됨. 피란수도 부산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는 근대유산으로는 세계 최초임
-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처로서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하였음. 이에 많은 실향민

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동해문화원이 주관한 프로젝트임

- 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부산에는 산동네가 많으며, 특히 이 산동네의 골목길 문화가 매우 독특하고 특색이 있음
- 또한 이러한 골목길 문화는 지역재생의 돌파구이자, 부산 고유의 문화 관광 콘텐츠이자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가운데 특히 부산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꿈을 꾸는 부산의 맞추픽추’, 2012년 ‘마을미술 골목길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예술가들이 지역민들과 협력하면서 지금의 감천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음
 - 산동네로서 독특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은 마을 벽마다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특히 마을입구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미난 조형물을 설치되어있음(조경환, 2018.05.09.)

그림 2-13. 알록달록한 감천문화마을 전경 / 어린왕자 포토존



자료: 한국일보 / 동부산관광단지공식블로그

- ※ 임시수도의 특성을 살린 부산시의 사례는 마찬가지로 임시수도였던 대전시에 큰 시사점을 줌. 따라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를 부산의 유산으로 등재한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행정 중심지이자 피란수도였던 대전시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이를 명소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 통영시 중앙도 산비탈 마을인 ‘동피랑’은 독특한 골목문화를 재조명함
- 특히 2007년 ‘지역혁신협의회’ 시범사업 공모로 3천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그림이 있는 골목,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으로 명소가 됨

그림 2-14. 통영과 관계 깊은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벽화



자료: 통영관광포털

08 각 품 명 / 이순신 장군과 백성들의 세침 시간 여류 팀명 / 김중환
 작품설명 /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 되기 이전에 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통영 고장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화합하지 않았을까?

2) 역사와 전통을 살린 경관 조성

- 도시경관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도시풍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사실의 투영체임(계기석·천현숙, 2001)
-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만큼 도시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모종린, 2014), 도시의 역사적 유산과 유적, 그리고 전통의 보존과 활용은 도시에게 ‘다름의 정체성’을 제공하며, 이는 ‘도시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함
- 따라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역사와 전통은 그 도시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릴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역사와 전통을 살려 경관을 조성한 국내 사례로 ‘버그내순례길’, ‘부산포개항가도’, ‘첫 마중길’, ‘붉은벽돌 마을’, ‘종로’, ‘삼일대로’ 등이 있음

(1) 충남 당진시 ‘버그내순례길’

- 버그내순례길은 한국 최초의 신부 탄생지인 ‘솔피성지’, 천주교 보급이 성행했던 ‘버그내장터’, 조선시대 3대 방죽 ‘합덕제(수리민속박물관, 농촌테마공원)’, ‘합덕성당’, ‘무명순교자의 묘’, ‘신리성지’ 등 한국 천주교 탄압기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살려 주변의 농촌경관, 문화유적, 성지들을 연결한 길임

- 버그네순례길은 솔피성지에서 신리성지까지 이르는 13.4km의 길이며, 도보로 약 4시간이 소요되어, '치유와 성찰의 시간'이라는 콘텐츠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판 산티아고길로 자리매김하였고, 2016 아시아도시경관상⁴⁾을 수상
- 또한 내포평야지대의 특색을 살려 '내포물길'과 낮은 구릉지를 조성해 '내포 경관 조망점'을 조성하고 있음. 이는 농촌 경관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내포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당진시 남부권을 중심으로 농촌 경관과 조화로운 조형물,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반영했다고 평가됨(파이낸셜 뉴스, 2016.07.12.)

그림 2-15. 버그네순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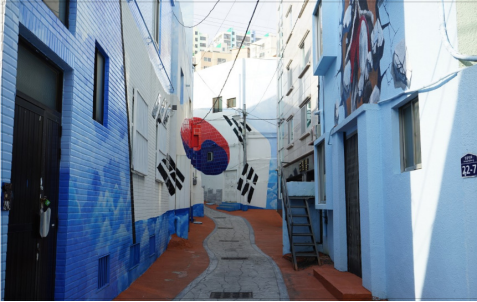
자료: 당진시 문화관광홈페이지

(2) 부산시 동구 '부산포개항가도'

- 부산포는 현재 좌천동과 자성대 일대를 아우르는 곳으로, 이 길은 역사골목스트리에서 증산공원까지 이어져 있음
- 부산포개항가도는 부산포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부산시 동구를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재탄생시키는데 기여함
- 또한 부산포개항가도는 2017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됨(박채오, 2017.08.29.)

4) 아시아도시경관상은 UN-Habitat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인간 주거 환경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가 지난 2010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는 경관분야에 대한 국제상.

그림 2-16. 부산포개항가도 투어 코스 중 -
역사스토리 골목



자료: 두피디아 여행기

(3)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 붉은벽돌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관광 명소화
-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듯 붉은벽돌 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리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
- 특히 개별적인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

그림 2-17. 서울시 성수동 붉은 벽돌마을



자료: 국민일보

(4) 전북 전주시 ‘첫 마중길’ 조성사업

- 첫 마중길은 황량하고 생기 없는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 백제대로 사이의 850m구간의 경관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시민희망나무 헌수를 통해 느티나무 가로숲길이 만들어지고, 지역 예술가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예술정류장, 아이들을 위한 워터미러,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개통 이후 나날이 일신
- 8차선 직선도로에서 6차선 곡선도로로 선형을 바꾸고, 도로 중앙에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등 자동차를 위한 도로보다는 사람을 위한 거리를 만드는데 주력하여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함(윤난슬, 2017.08.03.)

그림 2-18. 전주시 첫 마중길



자료: 오마이뉴스

(5) 서울시 ‘종로’

- ‘종로 전매특허’ 대청마루 문양 보도 : 얇은 화강판석으로 포장된 특색 없는 일반 보도와 달리 종로는 10cm 두께의 대청마루 문양 배열을 적용한 화강판석 보도가 2011년부터 적용됨

-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아 굴착공사 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노면의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층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

그림 2-19. 대청마루 문양 배열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동대문 성곽 공원 앞



자료: 서울신문

- 지역 특색에 맞는 간판 개선 사업 : 종로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한글 중심의 간판을 장려함. 건물주, 점포주, 관리자 등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돈화문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발족해 간판 디자인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간판 디자인을 작성
-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나 단속 위주로 간판을 정비하는 대신 주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간판 개선 참여 업체에는 간판을 무료 디자인해 주고 간판 설치비도 지원. 또한 한글중심의 아름다운 디자인 간판을 선정하는 공모전도 개최(주현진, 2017.12.10.)

(6) 서울시 '삼일대로'

- 3·1운동의 시작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장소들이 모여 있는 '삼일대로' 일대를 시민이 중심인 역사적 상징가도로 조성

- 현재는 그 흔적이 사라졌거나 방치돼 3·1운동 정신이 단절되고 가로 정체성도 상실된 채 남아있는 실정
- 하지만, 3·1운동 준비와 전개 과정에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됐던 역사적 장소를 7대 핵심거점으로 선정 및 연결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머무르고 사색할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 조성
- 삼일대로의 7개 핵심거점은 안국역, 독립선언문배부터, 천도교중앙대교당, 서북학회 터, 태화관 터, 탑골공원 후문, 3.1전망대(낙원상가)임

그림 2-20. 삼일대로 7개 핵심거점



자료: 경향신문

- 안국역 : 지하철역 출구 앞바닥에 긴박했던 3·1운동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성한 타임라인 바닥판 설치
- 독립선언문배부터 : 기존에 있는 담장을 허물어 계단쉼터로 조성, 독립선언문의 제작·보관·배부에 얽힌 스토리가 있는 공간 조성
- 태화관 터 :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1운동의 진원지이지만 현재 주차장 등으로 운영 중. 따라서 이 일부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민족대

표 33인을 기억하기 위한 ‘독립선언 33인 광장’(가칭)으로 조성

- 탑골공원 후문광장 : 광장 바닥에 3·1운동 만세물결을 상징하는 발자국 모양을 표현하고, 주차장으로 단절된 삼일대로변 보행길도 정비
- 낙원상가 : 낙원상가의 5층 옥상에는 삼일대로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이자 옥상 공원을 조성(이진주, 2018.04.24.)

그림 2-21. 3.1운동 전개 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성한 타임라인 바닥판



자료: 경향신문

- ※ 대전시도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등 애국 및 우국충정과 관련된 스토리화할 자원이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삼일대로와 규모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사례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3) 상업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특화거리 활성화

- 현재 각 지역마다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특화거리들이 조성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적 발전은 물론 경제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상업성이 조화를 이룬 특화거리가 활성화 되어야 함
- 상업과 문화를 조화를 통한 특화거리가 활성화된 국내 사례로 ‘객리단길’, ‘연트럴 파크’, ‘7080 추억의 거리’,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등이 꼽힘

(1) 전북 전주시 '객리단길'

- 객리단길은 다가동 객사 1~2길 인근 지역에 조성된 길로,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거리로서 전주 한옥마을의 후광효과로 함께 떠오름
- 조선 시대 유적인 '객사'와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이색적인 음식점,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음(전유진, 2018.05.15.)

그림 2-22. 전주시 객리단길



자료: 투데이안

(2)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연트럴파크'

- 경의선 숲길 공원은 연트럴 파크라 불리며, 1.2km가량의 일직선 형태임
- 원래는 버려진 철길이었으나 서울시가 2016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한 이후 식당과 카페, 소품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됨
- 또한 '연트럴파크'는 인근 홍대지역의 예술·문화 등이 연계된 공원으로서 도심속 여유로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전유진, 2018.05.15.)

그림 2-23. 서울시 연남동 언트럴 파크



자료: CJ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블로그 에누리하우스

(3)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 한국전통의 멋과 재래시장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의 상징물이 랜드마크로 조성되었으며, 글로벌 국제화 시장에 따른 다양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이러한 점들을 통해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우리동네 매력적인 재래시장부분’을 수상함(박재남, 2016.06.21.)

그림 2-24.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자료: 충북넷

(4) 경북 경주시 ‘7080 추억의 거리’

- 경주시는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역사 및 문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개성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역사도시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문화 조성 과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봉황로 거리 정비를 비롯하여 읍성과 성동시장을 연계한 특화 컨테츠로서 '7080 추억의 거리'를 조성함(이명진, 2018.04.17.)

그림 2-25. 경주시 추억의 거리



자료: 오마이뉴스

- ※ 위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상업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특화거리가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임
- 대전 유성구에서는 봉명동 온천관광특구 중 일부 거리를 카페거리로 특화해 일명 '봉리단길'이라는 명칭으로 유명해짐
- 대전 중구에서는 선화동에 '젊음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였는데, 인근 가로변과 골목에 젊은 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특화된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선화단길'이라 불리며 관심을 받고 있음
- 상업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특화거리는 단순히 상업적 거리를 조성하는 것보다 도시정체성이 담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향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

대전의 도시정체성과 경관자원

1. 대전의 도시정체성
2. 대전의 경관자원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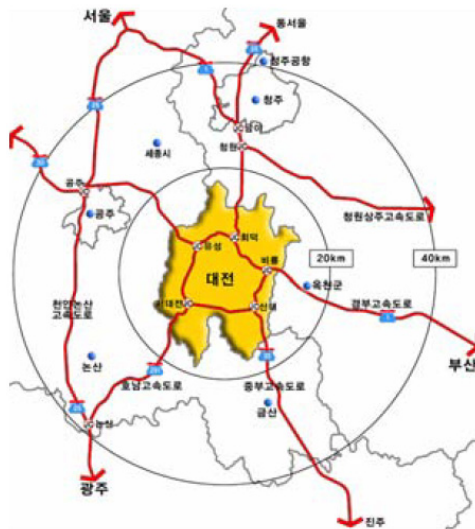
1. 대전의 도시정체성

1) 연혁과 지리적 특성

(1) 위치 및 세력권

- 대전시는 1949년 8월 면적 35.7km², 인구 126천인의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대덕군을 대전시로 편입, 직할시로 승격 후 1995년에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014년 행정구역 539.28km², 인구 1,547천인으로 60년간 면적15배, 인구 11배 증가되었음
- 공간체계상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어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축의 결절점에 놓여 있으며, 대전광역계획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
-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금산군, 충청북도 청원군·보은군·옥천군, 세종시와 접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계 상 금강의 상류지역에 입지함

그림 3-1. 대전광역시의 입지여건



자료: 대전광역시, 2014

(2) 도시 연혁

- 대전시의 도시 연혁을 살펴보면, 대전이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회덕·진잠·공주 3개 군을 폐합해 대전군을 신설, 군청을 대전에 두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통일신라를 거치며 군사적 요충지였음
- 대전읍이 확장되어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1935년 대전읍은 대전부로 승격했으며, 1940년 행정구역 확장으로 32개 동을 관할하게 되고, 24개 부중 17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음
- 도시지역 확장으로 1984년부터 유성 일원과 진잠·회덕 일부가 대전광역시로 편입되었음. 1989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아 중부권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성장거점도시로서의 구실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전은 직할시로 승격됨
 - 직할시 승격과 함께 기존의 대전시지역에 진잠면을 제외한 대덕군 일원을 편입, 유성구·대덕구 등 2개 구를 신설해 5개 구가 되었으며 1995년에 대전시로 명칭이 변경됨

그림 3-2. 대전광역시 변천과정



자료: 대전광역시, 2017a

(3) 대전의 경관의 시대별 형성과 변화

① 근대 이전의 대전의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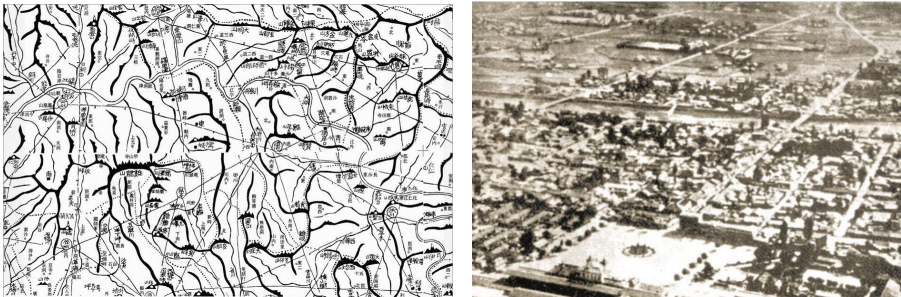
- 선사시대의 한반도 지역은 석기 시대를 전후하여 현재의 소재동, 유성, 유천, 산내 등지를 정착지로 택하였던 것으로 고증되고 있으며, 금속병용시대에 진잠

-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신흠국이라는 부족국가 존재했다는 내용이 문헌에 기록
- AD 250년경 백제에 의해 신흠국이 멸망된 후에 동부와 남부를 가로막고 있는 산맥을 경계로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이 설정되었으며, 백제가 공주와 부여로 천도하면서 대전지역은 우술군이라 하여 왕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상 요충지로 중요시됨
 -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가거지(可居地)중에 으뜸을 유성으로 선정하고 “편평한 언덕과 산은 길고 구부러지고 어여쁜 산 기슭은 맑고 깨끗하다. 구봉산과 보문산이 남쪽에 높이 솟아 그 맑고 깨끗한 기상이 거의 한양의 동교(東郊)보다 낫다...”로 대전의 풍경을 기술
 - 근세 이전의 대전 경관은 군사요충지로서 높은 산과 넓은 평야의 자연경관이 중심

② 근대 대전의 경관

- 1904년 한일협정과 경부선의 개통이 되면서 대전역이 설치되어 일본인 거주민 이주 시작
- 1910년 한일합방과 조선총독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주변지역의 부군면을 폐합하여 대전군(1914년)을 설치하고 대전면을 설정, 회덕읍 내에 있던 군청을 대전(현 원동)으로 이동
- 1932년에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1935년에 대전부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에 대전시로 개칭
- 근대 대전의 경관은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현재의 기존도심 지역이 저층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주변의 자연경관에 의해 에워싸여진 경관을 형성

그림 3-3. 대동여지도의 대전(좌)과 1930년대 대전 전경(우)



③ 현대 대전의 경관

- 6.25 발발로 시가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며 9.28 수복이후 새로운 형태로 도시가 재건
- 1962년 이후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한 결과 대전의 위상은 높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으로 대전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경부고속국도와 대전을 기점으로 한 호남고속국도의 개통 철도의 복선화 등으로 대전시의 위상이 급성장
- 1989년 대덕군의 편입과 직할시의 승격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와 대전무역박람회의 개최로 대전의 위상이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기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95년에는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체제를 개편 한국의 6대 도시로 성장함
- 또한 대전 근거리에 군사행정 중심인 계룡대,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과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명실상부한 국가행정, 과학기술, 교통의 중심지로 인식
- 현재, 대전의 경관은 경부고속철도, 도시철도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첨단과학, 행정중심 등 현대적, 미래지향적 주제가 도시경관 형성의 중요한 방향

④ 대전의 8경 선정

- 1996년 대전시에서 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날의 대전팔경을 선정함
- 옛날 조선환여승람의 대전팔경은 계족소우(계족산에 성근비), 보문초월(보문산의 초생달), 구봉축석(구봉산에 내려앉은 뾰족 쌓인 돌), 갑천낙안(갑천에 내려앉은 기러기 때), 유성모연(유성의 저녁 연기), 초강어화(대청호의 고기 잡는 햇불), 식장반조(식장산에 반사하는 해 비침), 고산효종(고산사의 새벽 종소리)임
- 오늘날의 대전 팔경은 식장산 자연생태림, 보문산 녹음, 구봉산 단풍, 장태산 휴양림, 유성온천, 엑스포 과학공원, 계족산 저녁 노을, 대청호수 임
- 대전 시민들의 주요한 대전 8경에서 자연과 어울린 경관이 6곳으로 나타났고, 인공으로 형성된 인문경관은 2곳임

그림 3-4. 대전시의 8경



식장산 자연생태림



보문산 녹음



장태산휴양림



유성온천



엑스포과학공원



계족산노을



대청호수



구봉산 단풍

2) 사회적 특성과 일반적 인식

(1) 사회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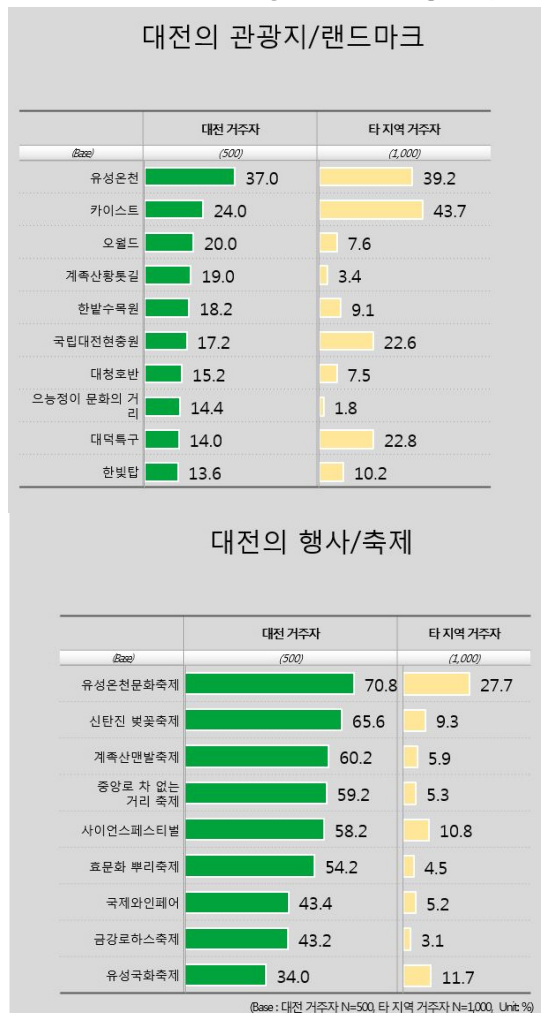
- 6.25 발발로 시까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며 9.28 수복이후 새로운 형태로 도시가 재건
- 1962년 이후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한 결과 대전의 위상은 높아지게 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으로 대전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경부고속국도와 대전을 기점으로 한 호남고속국도의 개통 철도의 복선화 등으로 대전시의 위상이 급성장
- 1989년 대덕군의 편입과 직할시의 승격은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와 대전무역박람회의 개최로 대전의 위상이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기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95년에는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체제를 개편 한국의 6대 도시로 성장함
- 또한 대전 근거리에 군사행정 중심인 계룡대,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과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명실상부한 국가행정, 과학기술, 교통의 중심지로 인식
- 현재, 대전의 경관은 경부고속철도, 도시철도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첨단과학, 행정중심 등 현대적, 미래지향적 주제가 도시경관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
- 영호남 유입 인구가 많고 지역색이 흐리며, 거주인구의 연령대는 젊은 편임.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하였으며, 국토의 중추로서 특징을 지님

(2) 대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

- 대전시가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해 2015년 11월 실시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타 도시 시민들이 대전하면 '1993 엑스포'(16.2%)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과학도시'(9.1%), '조용하다/차분하다'(7.7%),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7.1%) 순
- 대전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다'(14.1%), '느긋하다/느리다'(11.3%), '여유롭다'(10.0%)라고 응답

- 대전음식에 대해 묻는 주관식 설문에는 ‘떠오르는 음식이 없다’(46.6%)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튀김소보로’(7.1%), ‘성심당빵’ (7.0%), ‘두루치기’(5.0%), ‘갈국수’(2.7%)를 일부 알고 있다고 답함
- 대전의 랜드마크 및 관광지에 대한 중복응답형 객관식 설문에서 ‘카이스트’ (43.7%)와 ‘유성온천’(39.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유성온천문화축제’(27.7%), ‘유성국화축제’(11.7%), ‘사이언스페스티벌축제’(10.8%) 순

그림 3-5. 대전의 관광지과 대전의 행사 축제



자료: 대전마케팅공사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2016.1)

2. 대전의 경관자원

1) 자연적·생태적 유산

(1) 대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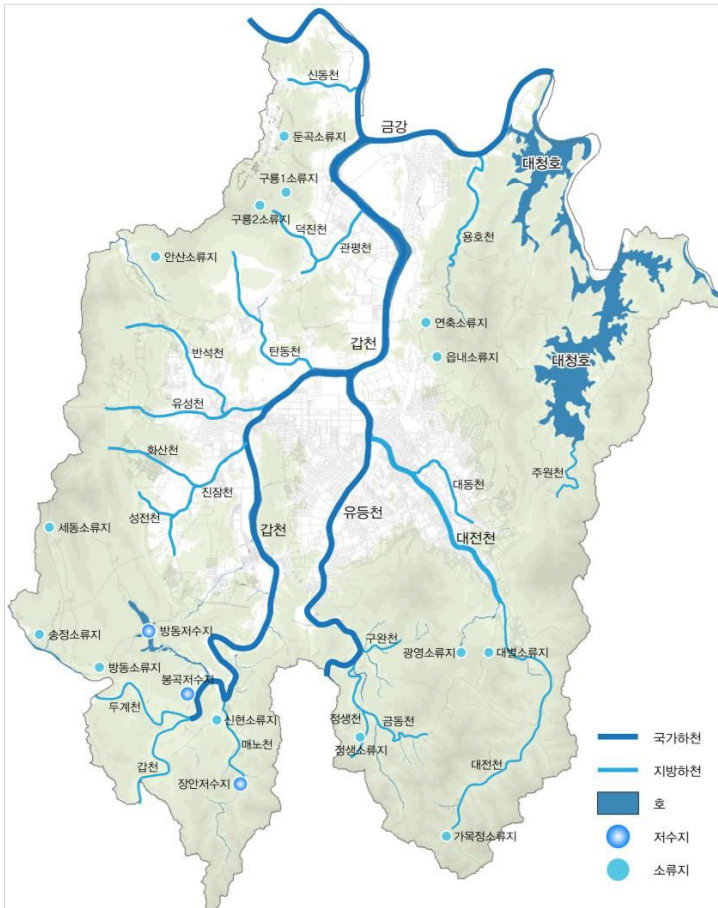
- 대청호수는 저수 면적 72.8km², 호수 길이 80km, 저수량 15억ton, 댐의 길이 495m, 댐 높이 72m의 우리나라 3번째 규모임
- 1975년에 착공하여 1980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대전, 청주지역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젖줄역할을 함
- 대청호상류의 금강 본류로 유입하는 주요 하천은 무주남대천, 봉화천, 영동천, 초강, 보청천 등이며 대청호로 직접 유입하는 주요 지천은 옥천천, 회인천, 주원천, 품곡천 등이 있음
- 대청호의 수질은 COD(화학적 산소소비량)와 총인(T-P)의 호소수질 기준을 적용할 때, 전반적으로 상수원수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용시설에는 교육시설로서 대청댐 물홍보관이 있으며, 연간 200만명이 넘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하여 홍보하고 체험하게 하는 산 교육장으로써 중부권에 유일한 물 홍보관임
- 물홍보관과 함께 잔디광장, 산책데크, 전망대, 분수등의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시민들의 여가시설로서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청호 추동습지지역 346,274m²(46개 필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



(2) 3대 하천

- 대전의 하천은 북쪽 시계의 동에서 서로 흐르는 국가하천인 금강과 시가지를 관통하여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대전의 중심 수경축을 형성하고 있음
- 유등천은 시의 남측에서 대전천은 시의 남동쪽에서 흘러들어와 시의 중앙부를 남측과 동남에서 서북부로 관류하며, 석교동 일대에서 넓은 유역평야를 이루고 삼천교에서 유등천과 대전천이 합류하여 대화동 인근에서 갑천으로 유입됨

그림 3-6. 대전시 하천 현황



자료: 대전광역시, 2015

① 갑 천

- 충청남도 금산군·논산시와 대전광역시를 복류하여 금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유로연장은 73.7km이며, 유역면적은 648.87km²으로 금강 지류중 하나이며, 9개의 지천이 있음
- 계룡산에서 발원하는 두계천과 대둔산에서 발원하는 벌곡천이 서구의 용천동에서 합류하여 가수원동부터 완만히 흐르다가 진잠천, 유성천, 탄동천이 합류
- 갑천은 한발을 가로지르는 3개의 하천 가운데 가장 물이 많고 다른 하천이 남으로 흐르는데 반해 북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음



② 유등천

- 금강 권역의 금강 수계에 속하며, 금강의 제2지류(제1지류는 갑천)로서 유등천의 유로연장 44.4km, 하천연장 15.53km, 유역면적 289.14km²이며, 8개의 지천을 갖고 있음
- 금산군 복수면·진산면 경계지점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이후 북쪽으로 흐르면서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의 경계지점을 지나 서구 삼천동에서 갑천으로 흘러, 침산동 시계에서부터 갑천 합류점까지 15.5km는 국가하천 구간



③ 대전천

- 금강의 제3지류로서, 대전천은 지방하천이며 유로연장 44.88km, 하천연장 22.4 km, 유역면적 138.45km²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지천(대사천과 대동천)이 있음
- 대동천이 합류되어 들어오며, 여름철 우기에만 많은 유량이 흐르며, 그 밖에는 거의 없음



(3) 산과 산성

① 주요 산지

- 대전시의 주요 산으로는 식장산(598m), 구봉산(264), 보문산(458m), 계족산(429m), 금병산(315m), 갑하산(469m), 금수봉(532m) 등이며 연봉을 이루며 시가지를 둘러싸여 있음
- 장대하지는 않으나, 대전의 주요 자연공원구역과 용도를 같이하며 지역 시민들의 주요 랜드마크(landmark)로서 기능
- 대표적 산지경관은 대전을 관통하고 넓게 흐르는 3대 하천인 갑천, 유등천, 대전천과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한밭대로, 대덕대로, 둔산대로, 동서대로 등이 만나는 결절점에서 원경 및 중경의 형태로 조망 가능

② 주요 구릉지

- 대전광역시의 주요 구릉지는 도시개발을 시행하다 경제성이 없어 버려 둔 산지가 구릉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으로 지정됨
- 대부분의 구릉지는 지반고 50m~100m 이내의 높이가 대부분이고, 지역 주민의 등산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삭막한 도시에 녹색의 경관 제공

- 산지경관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복용도시자연공원구역은 관암산 구역으로 신탄진 및 회덕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계족산 구역으로 월평공원과 도안공원은 구봉산 구역으로 구분 가능
- 이러한 구릉지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요 지표(landmark) 및 경계(edge)로 인식, 또한 도심의 녹색 허파로서 기능을 함
- 대부분의 구릉지는 최근까지 도시개발이 활발히 일어난 서구지역에 존재, 월평공원, 도안공원 등이 대표적 경관임
- 대전의 대표적인 구릉지 경관은 월평공원, 도시의 시가화된 바다에 존재하는 섬과 같은 존재로서 면적은 399ha(121만평)로써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 환경단체의 관심과 보호를 받음

그림 3-7. 대전의 주요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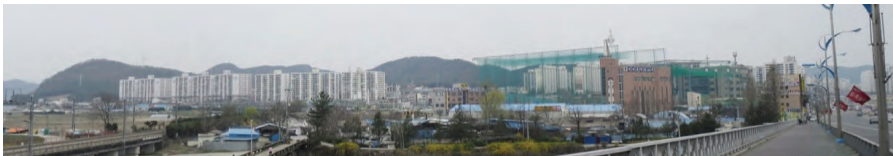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그림 3-8. 대전시 산지 및 구릉지 현황



자료: 대전광역시, 2017a

2) 문화적·역사적 유산

(1) 과학도시

○ 1974년 대덕특구 조성

- 대덕연구단지 구축으로 산업연구시설의 집중화가 이루어져 중부권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음. 대덕연구단지는 한국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대전이 과학 도시로 거듭나는데 매우 큰 계기가 되었음

○ 대덕특구 연구인력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연구기술직은 2005년에는 6,236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4,675명으로 증가. 석사연구기술직은 2005년에는 7,561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0,926명으로 증가. 학사이하 연구기술직은 2005년에는 2,962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733명으로 증가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전 대덕특구(또는 대전지역)의 연구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대전의 정부출연연구원수가 2005년 24개관에서 2015년 26개관으로 2개관 증가한 것에 비해 기업의 경우, 2005년 687개관에서 2015년 1,613개관으로 3배 이상 증가

○ 이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기관 중심의 과학도시 인프라가 경제적으로 파급되고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가능

표 3-1. 대전시 대덕특구 연구인력 학력별 현황

| 구분 | 박사 | | 석사 | | 학사이하 | | 계 |
|------|--------|-------|--------|-------|-------|-------|--------|
| | 연구기술직 | 비율(%) | 연구기술직 | 비율(%) | 연구기술직 | 비율(%) | |
| 2005 | 6,236 | 37.2 | 7,561 | 45.1 | 2,962 | 17.7 | 16,759 |
| 2015 | 14,675 | 46.8 | 10,926 | 34.9 | 5,733 | 18.3 | 31,334 |

자료 : 대전광역시(2017b).

표 3-2. 대전시 대덕특구 연구기관 현황 (단위: 개)

| 구분 | 정부출연 (연) | 교육기관 (대학) | 기타 연구기관 | 정부 및 국공립기관 | 기타 비영리 기관 등 | 기업 | 합계 |
|------|-------------|--------------|------------|---------------|----------------|-------|-------|
| 2005 | 24 | 5 | 10 | 15 | 3 | 687 | 744 |
| 2015 | 26 | 7 | 12 | 24 | 23 | 1,613 | 1,705 |

자료 : 대전광역시(2017b).

(2) 교통행정도시

-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대전으로 임시천도(1950.6.28~7.14)를 하였고, 대구로 옮겨질 때까지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1989년 대덕군 전역을 편입하면서 대전직할시로 승격
 -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와 인천, 1986년 광주에 이어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게 되면서, 중부권의 최대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음
- 정부3청사조성 :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듬해인 1996년에 통계청, 조달청을 비롯한 11개의 정부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은 행정 도시로 자리하게 되었음
- 조선시대까지 회덕군, 진잠군으로 나뉘어 있던 대전 지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 대전역 신설을 기점으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음
 - 1970년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오가는 교차로 역할을 하게 되는 데까지 영향을 줌
- 대전시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이며,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전국 어느 방향으로든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 대전의 도심으로부터 북쪽으로 서울 162km, 남쪽으로 부산 249km, 전주 174km이며, 서쪽으로 당진까지 105km 등 전국 주요 도시가 2시간 내로 연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의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충청남도의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등 인접지역과의 광역도로망도 잘 갖추어짐
- 대전시의 고속국도망은 남북축으로는 경부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등 3개의 도로가 있고, 동서축으로는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 대전남부순환고속국도 등 2개의 도로가 있음. 동서축은 최근에 개발되어 동서 간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강원도 및 경북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고속국도망은 미개발된 상태에 있음

(3) 역사문화경관

① 문화재 지정 및 등록

- 대전시는 보물10종, 사적1종 등 12종의 국가지정문화재와 52개의 유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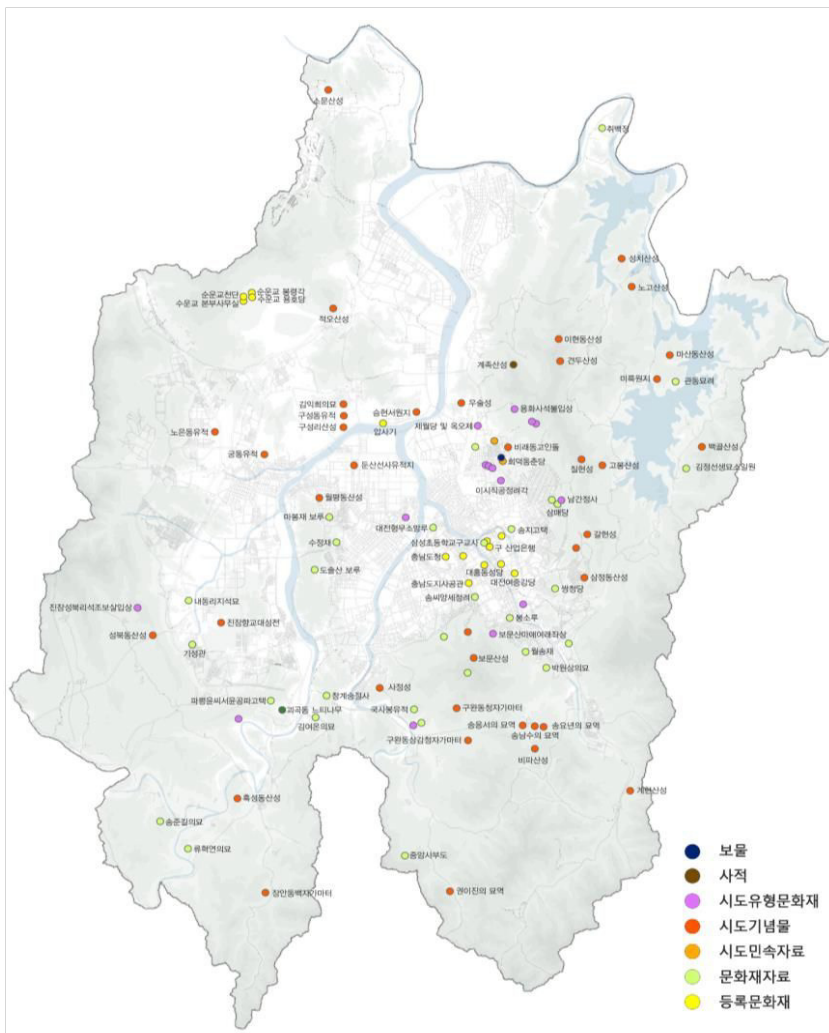
를 포함한 시·도지정문화재 178개를 합하여 총 190개의 지정문화재와 20개의 등록문화재를 보유함

표 3-3. 대전시 문화재 현황

| 구분 | 계 | 국가지정문화재 | | | | 시도지정문화재 | | | | | | 등록 문화재 |
|----|-----|---------|----|----|--------|---------|--------|--------|-----|--------|--------|--------|
| | | 소계 | 보물 | 사적 | 천연 기념물 | 소계 | 유형 문화재 | 무형 문화재 | 기념물 | 민속 문화재 | 문화재 자료 | |
| 계 | 210 | 12 | 10 | 1 | 1 | 178 | 52 | 21 | 46 | 3 | 56 | 20 |

자료 : 대전광역시(2015).

그림 3-9. 대전시 문화재 현황도



자료: 대전광역시, 2015

② 근현대문화유산

- 대전 기존 도심은 1905년부터 경부선 대전역이 개통되면서 발전되었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존 도심의 역사는 대전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음
- 근대건축물은 대부분 기존도심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의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주변의 근대건축물은 중요한 유형적 자산으로서, 대전의 근현대사를 알려주는 상징적 건축물임
- 현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건축물은 관공서(충남도청), 금융기관(산업은행, 조흥은행 등), 관사주택류(충남도지사 공관 등), 기타(대전발전소) 등이 있음

그림 3-10. 대전시 근현대문화유산



대전 충청남도청 구본관

산업은행 대전지점

충청남도지사공관

대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충청지원

(4) 유교문화권

- 대전은 회덕과 진잠을 중심으로 향교와 서원 등 유교 사적이 다수 분포해있고, 송준길, 호연재 김씨, 박팽년, 김익겸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함

-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로, 1606년 출생. 송준길은 유교 주자학의 대가로 문묘에 종사된 해동 18중 한사람임. 송준길은 당대 뛰어난 학식과 학문으로 내시교관, 형조좌랑, 한성부판관, 사헌부집의, 대사헌,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의 관직에 오름. 후학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 능해 『어록해』, 『동춘당집』 같은 저작과 총렬사비문, 윤계순절비문과 같은 글씨를 남김. 대전지역 내 송준길의 문화유산으로 그의 별당이었던 '동춘당'이 있음
- 호연재 김씨 : 조선 후기의 여류시인으로 1681년 회덕 송촌에서 출생. 사대부 여성이 지닌 절제된 감정과 사유를 담은 호연재의 시문은 『오도추치』, 『호연재 유고』, 『자경편』이라는 3개의 책으로 필사되어 가전됨. 그 중 『호연재 유고』는 후손 송용억에 의해 번역 출간되어, 오늘날 조선 후기 여류문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호연재는 17~18세기 조선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조선 여류 문학에 있어 한 획을 그었음에도, 대전 지역에서조차 업적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대전지역에 호연재 김씨와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소대헌·호연재 고택이 있음

그림 3-11. 호연재 김씨의 시비 / 소대헌·호연재 고택



- 이 밖에 2011년 대전 유성구 금고동 안정나씨 종중 묘 이장 과정에서 발견되어 대전시립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조선시대 의복들도 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특히 함께 출토된 한글편지는 훈민정음이 반포된지 60~8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 쓰여진 것으로 훈민정음의 빠른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임

(5) 개혁과 우국충정

-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 일제 강점기 언론인, 역사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대표적 지식인. 1880년 중구 어남동에서 출생. 1905년부터 단군, 부여, 고구려 중심의 민족주의 사관을 잘 드러낸 역사 논문을 발표하였고, 언론활동과 더불어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 조직에 참여했으며,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가담.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광복회를 조직하였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1920년대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집필. 1928년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뤼순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옥중 순국. 대전시는 그의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
-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璜) : 조선말기의 유학자이자 순국지사로 송시열의 9세손이며, 대전시 회덕 출생. 주요 저서로는 『근사속록』과 『연재집』 등이 있음. 1905년 을사조약이 강압적 체결되자, 「적토흉적소(請討凶賊疏)」를 올리고, 고종을 알현하여 을사오적 처형,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십조봉사를 올림. 결국 송병선은 나라를 잃은 통분으로 1905년 12월 30일 황제와 국민, 유생에게 유서를 남기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순국. 그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역사회 내에서 인지도는 매우 낮음. 관련된 문화유산으로 그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문충사가 대전에 있음

(6) 선사유적

① 구석기 시대 유적(Relics of the Paleolithic Age of Daejeon)

○ 구즉동 유적

- 오봉산 남쪽 자락의 구즉마을에 있음. 구릉성 산지에 위치하였는데, 지금부터 약 15,000년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남
- 석영돌과 화강암으로 만든 굽개와 찍개가 나와 갑천 강가에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줌

○ 용호동 유적

- 금강과 용호천이 합류하는 평탄대지에 위치함. 약10만년에서 1만년 전 사이에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던 사실을 확인
- 굽개 · 찌개 · 여러면석기 · 몸돌 · 격지 · 스페찌르개 · 밀개 · 양끝찌르개 · 톱니날 등 여러 가지 석기들이 나왔고, 자갈돌로 만든 불뚱 자리도 조사하였음. 용호동 유적은 대전지방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임

○ 용산동 유적

- 갑천 남쪽 멀리 떨어진 들판 가운데 에 있는 낮은 언덕에 있음
-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시대 유적이 한 곳에 자리함
- 구석기시대 유적은 약 15,000~1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몸돌 · 격지 · 망치돌 격지 등이 출토

○ 둔산동 유적

- 갑천 남쪽 멀리 떨어진 들판 가운데 에 있는 낮은 언덕에 있음
-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시대 유적이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
- 구구석기시대 유적은 약 15,000~1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몸돌 · 격지 · 망치돌 격지 등이 출토

② 신석기 시대 유적 (Relics of the Neolithic Age of Daejeon)

○ 둔산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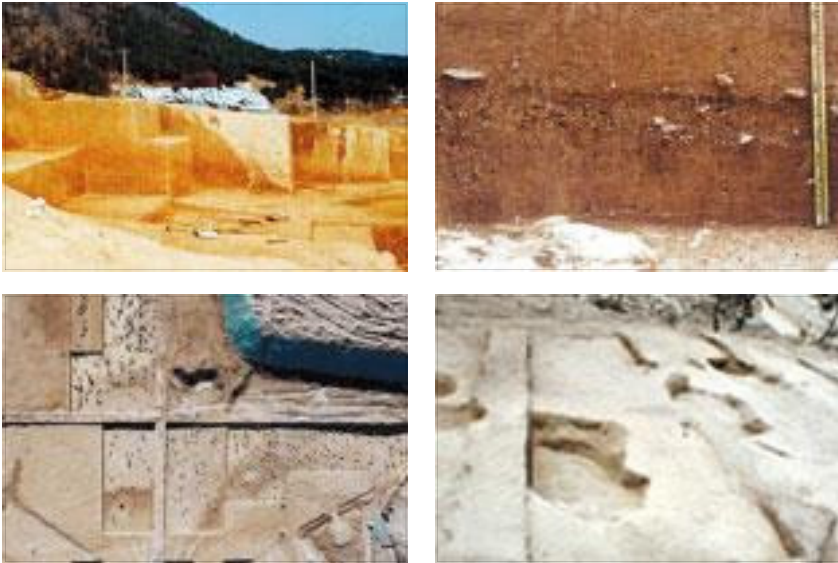
- 갑천가 넓은 들판에 솟아있는 낮은 구릉의 북쪽경사면에 위치
- 1991년 둔산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발굴조사를 통해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 시대 유적이 확인됨
- 작은 원형 집자리 13기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 · 돌보습 · 어망추 등이 출토하. 신석기시대 후기에 속하며 한강유역의 서해안 빗살무늬토기 문화 전통이 강하며, 내륙지방 영향도 보임. 대전지방의 신석기인들은 얇은 구릉위에 살면서 넓은 농토와 풍부한 물을 배경으로 농사와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음

○ 송촌동 유적

- 1996년 선비마을 일대를 발굴 · 조사하여 신석기시대 구덩이와 백제시대 유적을 확인함
- 구덩이는 지름이 280cm 정도 되는 둥근 형태였는데, 빗살무늬토기편이 나왔음

- 며, 토기무늬에는 생선뼈 같은 빗살무늬를 비롯하여 마름모꼴 무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늬를 눌러 만든 무늬와 창살무늬가 찍힌 작은 토기도 출토함
- 둔산유적에서 조사된 토기와 무늬가 비슷하여 신석기시대 중기인 기원전 3000년 전의 유적으로 추정하며, 구덩이가 작고 화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구적인 집자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야영유구임

그림 3-12. 대전의 선사 유적(좌상부터 시계방향 구즉동, 용호동, 둔산동, 용산동 유적)



③ 청동기 시대 유적 (Relics of the Bronze Age of Daejeon)

○ 한국청동기문화의 중심지, 대전

- 대전지방은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한국식청동단검이 발견된 곳임
- 괴정동 널무덤에서 나온 청동기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한국식청동단검이 포함됨, 방패형 청동기에 새겨진 섬세하고 기하학적인 무늬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주조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의 제작중심지가 대전지방으로 추정. 탄방동에서 출토한 것으로 전해지는 농경문청동기에는 따비로 밭을 가는 모습, 팽이로 땅을 일구는 모습, 수확한 곡물을 토기에 보관하는 모습, 나뭇가지에 새 두 마리가 앉아 있는 모습 등이 새겨져 있어 당시의 종교나 생활의식, 또는 풍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평가되고 있음

그림 3-13. 대전의 청동기 시대 유적



○ 요령식동검문화

-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의 기원은 요령지방에 있음. 비파형동검이라 부르는 칼과 거친무늬 거울이 대표적인 유물임. 청동기유물들은 중국 요령(遼寧), 길림(長春) 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는 함경도지방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됨. 그 밖에 요령식 투겁창, 부채도끼, 화살촉, 손칼, 단추, 끌, 밀개 등이 있음
- I기의 청동기문화는 요동반도에서 서해안을 통해 서북과 중서부지역에 유입되어 한반도에 확산됨,

○ 한국식동검문화

- 한반도에서 순수한 한국식 청동기를 제작, 사용하는 시기임. 기원전 4세기 이후에 형식이 다른 제작되어 한국 청동기의 특징을 갖추게 됨
- 한국식청동검과 거울이 대표적인 유물임, 한국식청동기에는 한국식동검, 꺾창, 투겁창 등의 무기류와 잔무늬거울, 방울달린 청동기 및 검파형 · 방패형 · 원개형 등의 청동 의기류가 대부분을 이루며, 도끼, 끌, 밀개 등의 공구류 등이 있음. 한국식동검문화는 북방지역의 청동기 및 중국 청동기문화를 수용하여 한국식 청동기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일본으로 전파하여 일본 청동기문화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 구성동 유적

- 대전기상청 앞 나지막한 야산에 위치함. 집자리 10기, 구덩이 1기, 독무덤 4기, 돌곽무덤 1기, 미상유구 4기를 확인함
- 집자리는 모두 송국리형 집자리로, 방형 2기, 원형이 8기입니다. 배가 부른 송국리형토기 · 속이 깊은 바리 · 붉은간토기 · 아가리에 도도룩한 무늬를 낸 구순 각목토기 · 대팻날 · 흙자귀 · 돌도끼 · 간돌칼편 · 숫돌 · 석도 등이 출토됨. 부여 송국리 유적과 비슷한 기원전 6~4세기경에 살았던 집자리로 추정

○ 괴정동 유적

- 대전기상청 앞 나지막한 야산에 위치함. 집자리 10기, 구덩이 1기, 독무덤 4기, 돌곽무덤 1기, 미상유구 4기를 확인함
- 집자리는 모두 송국리형 집자리로, 방형 2기, 원형이 8기입니다. 배가 부른 송국리형토기 · 속이 깊은 바리 · 붉은간토기 · 아가리에 도도룩한 무늬를 낸 구순 각목토기 · 대팻날 · 흙자귀 · 돌도끼 · 간돌칼편 · 숫돌 · 석도 등이 출토됨. 부여 송국리 유적과 비슷한 기원전 6~4세기경에 살았던 집자리로 추정됨

○ 궁동 유적

- 충남대학교 정문 서쪽언덕에서 남으로 벌은 능선에 자리함. 집자리 13기, 초기철기시대 움무덤 1기, 원삼국시대 움무덤 16기, 백제시대 독널무덤 1기, 돌방무덤 3기, 돌곽무덤 28기 등을 확인함
- 집자리는 전기의 평면이 장방형인 것과, 후기의 원형 송국리형 집자리가 있음. 또한, 전기문화의 특징인 아가리가 이중인 가락동식 토기와 칼자루에 마디가 있는 돌칼이 나옴
- 후기에 속하는 송국리형 집자리에서는 배가 둥근 송국리형 토기와 함께 초기철기시대의 토기인 아가리에 둥근 테가 붙은 점토대 토기가 함께 나왔음

④ 대전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Relics of the Early Iron Age of Daejeon)

○ 자운동·추목동 유적

- 충남대학교 정문 서쪽언덕에서 남으로 벌은 능선에 자리함. 집자리 13기, 초기철기시대 움무덤 1기, 원삼국시대 움무덤 16기, 백제시대 독널무덤 1기, 돌방무덤 3기, 돌곽무덤 28기 등을 확인함
- 집자리는 전기의 평면이 장방형인 것과, 후기의 원형 송국리형 집자리가 있음. 전기문화의 특징인 아가리가 이중인 가락동식 토기와 칼자루에 마디가 있는 돌칼 발견함
- 후기에 속하는 송국리형 집자리에서는 배가 둥근 송국리형 토기와 함께 초기철기시대의 토기인 아가리에 둥근 테가 붙은 점토대 토기가 함께 발견

○ 구성동 유적

- 대전기상청 건물 신축시 조사된 집터는 구릉의 완만한 남쪽사면 일대에 분포
-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반타원형이 비교적 많은데, 바닥에는 대부분 점토를 다졌

음. 12기의 집터 내부에서는 터널형의 화덕자리가 발견되었으며, 항아리 · 단지 · 긴 계란모양토기 · 시루 등이 나옴

그림 3-14. 구성동 유적



3) 대전의 경관 자원과 핵심 랜드마크에 따른 도시정체성 유형화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전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함. 이와 함께 ‘대전이라는 도시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대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대전 지역 내 어떠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다양한 질문들이 병행되어야 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란 ‘무엇이 대전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대전의 도시의 정체성이란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며, 도시정체성의 다양한 요소들 중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가장 중요
- 대전의 도시정체성은 주어진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생성되어감. 과거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교통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았으나, 오늘날에는 교통도시로서의 위상이 줄어들고 과학도시로서의 대전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음
- 대전 지역은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 또한 계족산 황톳길이나 튀김

소보로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명소를 지님

-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대전지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만큼 변화에 대한 수용과 대응 등이 다양하게 표출됨. 이와 같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수용과 대응은 도시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어 도시의 생생한 기억이라 풀이됨. 그러므로 도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대응의 모습을 포착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보다 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전의 사회적·문화적 인프라 간의 연계가 나타나야 함. 여기에는 도시경관에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과제가 요구됨

(2) 대전의 대표적 랜드마크

- 염인섭(2018)은 대전시 랜드마크 조성 관련 기본계획을 비롯한 수상작, 언론에서 언급한 명소, 기타 정부추진사업 등을 바탕으로 랜드마크 추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그 결과 총 300여개 대상지 중 103개의 랜드마크 후보지들이 추출되었고, 이 중 대전의 핵심 랜드마크 대상지 20곳을 다음과 같이 선정(염인섭, 2018)
- 엑스포공원, 유성온천, 보문산, 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청(땀)호, 동춘당공원, 뿌리공원, 우암사적공원, 중앙시장, 한밭수목원, 오월드, 계족산, 장태산자연휴양림, 옛 충남도청, 대흥문화예술의거리, 계족산항톳길, 회덕향교, 이사동, 갑천, 중앙로
- 각각의 랜드마크들은 그 속성에 따라 도시정체성의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각각의 정체성 특성들을 묶어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화가 가능

- 첨단과학도시 : 엑스포공원
-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도시 : 유성온천, 보문산, 대청(땀)호, 한밭수목원, 오월드, 계족산,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항톳길, 갑천
- 교통중심도시 :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중앙로
- 유교문화도시 : 동춘당공원, 뿌리공원, 우암사적공원, 회덕향교, 이사동
- 근대문화도시 : 중앙시장, 옛 충남도청, 대흥문화예술의 거리, 중앙로

표 3-4. 대전의 핵심 랜드마크 20곳의 '정체성 요소' 및 '스토리 유형화' 분류

| 대상지 | 정체성 요소 | 스토리 유형화 |
|------------|---|------------|
| 엑스포공원 | 과학도시 대전시를 상징하는 거점공간으로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유성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명소화 | ⇒첨단과학도시 |
| 유성온천 | 국내 가장 오래된 '온천지구'이자 대전유일의 관광특구로, 유성온천에 얽힌 전설과 역사적 기록이 남아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보문산 | 대전둘레산길의 시작점으로, 보문산 명칭을 둘러싼 전설, 민속신앙, 전통놀이 등이 연계됨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응봉이 문화의거리 | 대전역 앞 중앙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가로공간이자, 행정·상권·문화의 중심지로, 국내 최대 아케이드형 스크린 대전 스카이라드가 조성 | ⇒교통중심도시 |
| 대청(댐)호 | 금강 수계 최초 다목적 인공저수지로, 대전 최초 민간 사회복지관 기능을 한 '미륵원'이 있었던 장소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동춘당공원 | 보물 제209호인 '동춘당' 소재지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 | ⇒유교문화도시 |
| 뿌리공원 | 세계 최초로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 '효 테마공원'이 있고, 전국 유일의 '한국족보박물관', '대전효문화진흥원'도 위치 | ⇒유교문화도시 |
| 우암 사적공원 | 우암 송시열이 기거하던 남간정사를 포함해 조선시대 별당건축 양식과 정원 조경사를 살펴볼 수 있음 | ⇒유교문화도시 |
| 중앙시장 | 경부선 철도 개설과 함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시장 내 구 산업은행, 구 조흥은행 등 근대 문화 유산이 남아있음 | ⇒근대문화도시 |
| 한밭수목원 |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으로, 엑스포 시민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매년 사언스페스티벌이 개최됨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오월드 | 대전시의 유일한 유원지로 계절별 특색을 살린 축제가 개최됨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계족산 | 대전 유일의 국가 사적인 계족산성이 있으며, 대전 유일의 '농촌축제' 및 '코스모스 축제' 개최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장태산 자연휴양림 | 국내 최초로 개장된 민간휴양림으로, 국내 유일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인지도가 높음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옛 충남도청 | 옛 충남도청사 본관은 대전에서 현존하는 근대기 관청 중 가장 오래되었고, 원도심 지역의 주요 도시의축 결절점에 위치한 점(點)적 공간 | ⇒근대문화도시 |
| 대흥문화 예술의거리 | 대전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보유한 거리로, 대전시의 근대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적 풍경 창출의 잠재력이 높음 | ⇒근대문화도시 |
| 계족산 황톳길 | 계족산 등산로 일부 구간이 황톳길로 되어 있어, 전 세계 유일의 '맨발문화축제'가 개최됨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회덕향교 | 조선시대 건립된 국립교육기관 | ⇒유교문화도시 |
| 이사동 | 500여 년간 형성된 은진 송씨 동족마을로, 마을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총 6개 코스의 '이 | ⇒유교문화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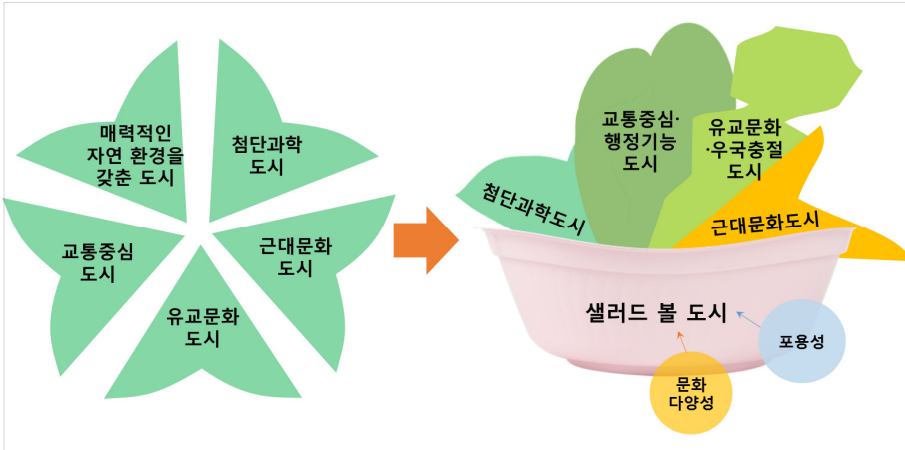
| | | |
|-----|--|--------------------|
| | 사동 유교민속마을 누리길 조성' | |
| 갑천 | 대전 최초의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를 포함해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갑천과 얽힌 다양한 전설이 전해짐 | ⇒매력적인 자연환경 |
| 중앙로 | 대전역 개통이후부터 대전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중심거리이자 근대문화예술특구의 주요 축으로 일대에 근현대 문화유산이 산재함 | ⇒근대문화도시 ⇒교통중심도시 |

자료: 염인섭(2018)에서 핵심 랜드마크 대상지 20곳 및 그에 따른 정체성 요소 내용을 참고하여 스토리별로 다시 유형화함

(3) 대전 도시 경관의 전략 사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 전술한 다섯 가지 유형 가운데, '매력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도시'를 제외한 네 가지 유형은 대전 도시정체성의 중심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어, 도시경관조성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전이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스토리에 현재 대전의 속성에 따라 첨가되는 정체성 요소들이 있어, 다음 3가지 유형의 도시정체성을 도시 경관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추가할 수 있음
 - 교통중심도시는 대전에 있는 정부3청사와 인근에 있는 세종시의 영향으로 '교통중심·행정기능도시'로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음
 - 유교문화도시는 단재 신채호, 송병선 등의 우국 선열의 흔적이 포함된 '유교문화·우국충절도시'로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음
 - 여기서 전술한 도시정체성의 요소들이 탄력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문화나 유입 인구에 개방적인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마치 샬러드 볼 같은 특성을 보여 '샬러드 볼 도시'로서 정체성도 추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대전의 5가지 도시정체성은 '첨단과학도시', '근대문화도시', '교통중심·행정기능도시', '유교문화·우국충절도시', '샬러드 볼 도시'로 유형화가 가능함

그림 3-15. 대전 도시 경관의 전략 사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경관 사업 제안

1. 첨단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경관
2. 교통과 행정의 기능을 각인하는 도시경관
3. 근대 역사의 경험을 기억하는 도시경관
4. 우국충절과 유교문화를 기리는 도시경관
5.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경관

4장

1. 첨단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경관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첨단과학도시

- 대전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 노력해왔음
- 특히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유성구의 30개 법정동과 대덕구의 2개 법정동의 범위에 걸쳐 지정되어 있음

그림 4-1. 대덕특구 4대 특화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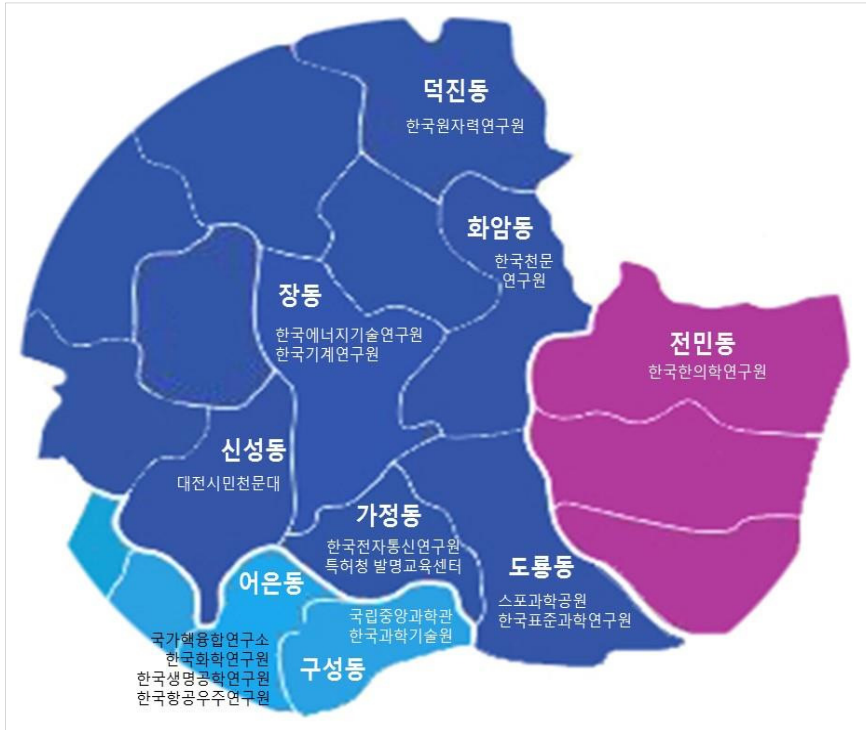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4대 특화 첨단산업으로는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가 있으며,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의 15%, 국내 박사급 연구 인력의 11%가 이 특구에 밀집되어 있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참고)
-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첨단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은 물론,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대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민천문대 등 첨단과학 관련 연구기관 및 시설이 16곳이나 있으며, 이들 모두 유성구에 밀집되어 있음

그림 4-2. 대전시 소재 첨단과학 연구기관 및 시설



- 이 가운데 특히 KAIST(한국과학기술원)은 1971년 대전 유성구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대학으로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 대전은 1993년 유성구 대덕 연구단지 도룡지구에서 전문엑스포 사상 최대인 해외 108개국 및 33개 국제기구, 그리고 국내 14개 시도 및 정부기관 및 기업 등이 참가한 ‘대전엑스포(The Taejon International Exposition)’를 93일간 개최한 경험도 있음
- 대전엑스포를 통해 대전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문화, 지역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둠. 이와 더불어 상업적인 무역박람회로 시작된 엑스포가 환경보전, 문화예술, 개척 정신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축제라는 새로운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음(대전마케팅공사 홈페이지)

- 이후 대전은 대전엑스포 감동과 환희를 기억하기 위하여 유성구에 '엑스포 과학공원'과 서구에 '엑스포 시민광장'을 조성해놓음
- 2015년 이래 엑스포 시민광장, 한빛탑 및 원도심 일원에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으며, 2018년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됨
- 대전은 첨단과학기술을 위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련 연구기관 및 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박람회기구 공인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과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과학의 거점이자 '첨단과학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

2) 전략 사업: 사이언스 스트리트(Science Street)

- 대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니지만, 연구단지가 입주한 도시일 뿐 실제 도시환경은 과학과 철저히 유리되어있는 실정임
- 도로, 건물, 공원, 산책로,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도시환경이 대부분 과학과 무관
- 따라서 첨단과학 연구기관 및 시설이 밀집된 유성구를 중심으로 '사이언스 스트리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첨단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정체성 및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첨단과학 연구기관 및 시설이 밀집된 곳 사이에 탄동천 자연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조형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면, '과학과 예술', '자연과 인공', '지성과 감성'이 균형 잡힌 미래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과학문화 공간 조성

- 기존의 연구기관이나 그 주변 및 유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해야 함
- 대전시의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과학을 쉽게 접근하고,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딤돌 플라자'를 건립

하여 운영 중

- 이는 개방형 과학문화공간으로서 갤러리, 카페, 라운지, 북 카페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딤돌플라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민들을 위한 과학문화 공간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① KAIST 후문 근처에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연계된 벤처공간이나 창업공간 구성
 - 2019년 1월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픈스퀘어-D 대전’이 개소함
 - 오픈스퀘어-D는 공공데이터⁵⁾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구체화, 창업부터 지속성장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임(open square D 홈페이지 참고)
 - ‘오픈스퀘어-D 대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창업공간 및 벤처공간이 필요
- ②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근은 진화론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공간으로 활용
- ③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시민천문대 구간은 항공우주 체험공간으로 거리 조성
- ④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을 위한 활동 공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창업 공작소를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업 및 IT 창조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함
- ⑤ 도룡동-국립중앙과학관까지 과학체험거리를 조성
 - 거리 과학퀴즈 공간을 구성
 - 유성도서관을 활용하여 과학문화 도서관 기능강화
 -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과 과학교육 연계 프로그램 진행
- ⑥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AIST,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에 이어지는 ‘탄동천 자연산책로’를 연계하여 활용

5)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

그림 4-3. 사이언스 스트리트 구성안



(2)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

- 오늘날 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체투영관에서 ‘별 음악회’가 열리고 있음.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문대 천체투영관에서 시민들이 클래식을 들으며 별을 볼 수 있는 음악회임(박오덕, 2018.07.09.)
- 대전시민천문대의 별 음악회의 사례와 같이 첨단과학기술 공간에 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사이언스 스트리트 곳곳에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조형물이 조성되거나 이벤트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① 저명한 과학자 및 과학 발명품 활용

- ‘탄동천 자연산책로’ 곳곳에 저명한 과학자를 상징하는 동상이나 벤치, 과학 발명품 또는 과학체험을 위한 조형물, 예술 창작품과 과학예술 융합작품 등을 전시하는 활용
- 이를 통해 저명한 과학자를 알리고, 과학지식 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②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

- 2018년 개최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주 행사지인 대전시 서구의 엑스포 시민광장과 한빛탑 및 원도심 일원에서만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유성구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계과학문화포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사이언스데이’, 그리고 대덕특구 일원에서 ‘대덕특구 탐방투어’ 프로그램이 특별 및 연계행사로 진행됨(사이언스페스티벌 홈페이지 참고)
- 향후 대전컨벤션센터, 국립중앙과학관, 대덕특구 일부의 장소뿐만 아니라, 사이언스 스트리트 전역에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확대 운영하여,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이를 통해 시민들이 대전의 과학문화를 보다 가까이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③ 사이언스 스트리트 곳곳에 랜드마크 조성

- 미국 시카고의 밀레니엄 공원의 ‘구름의 문(Cloud Gate)’ 사례와 같이, 사이언스 스트리트 입구나 유성역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첨단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예술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 정체성 강화는 물론 랜드마크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 사이언스 스트리트 곳곳에도 관광객의 이목을 끄는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설치물을 설치하여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적극 활용해야함

그림 4-4. 밀레니엄 공원의 '구름의 문'



(3) '꿈돌이'와 '한꿈이' 캐릭터를 활용한 거리조성

- 전문 연구기관은 주로 연구자 및 관련 관계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방되더라도 경직되거나 폐쇄적일 거라는 인식이 강해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분위기임
- 따라서 대전엑스포의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현재 대전시의 마스코트인 '한꿈이'를 적극 활용하여, 첨단과학도시의 대전의 이미지를 살리는 동시에 보다 시민들이 친숙하게 '사이언스 스트리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이언스 스트리트 전체에 꿈돌이와 한꿈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통일감을 주되, 각 기관 및 시설의 특색을 살려 캐릭터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간판, 배너, 가로 등, 맨홀 등에 활용하면 통일성과 개성을 동시에 표현하기에 효과적일 것임
- 또한 사이언스 스트리트에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다면, 대전이 첨단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하나의 주제에 의한 캐릭터 거리화가 되어 이 벤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그림 4-5. 한꿈이와 꿈돌이 캐릭터 응용



(4) 사이언스 스트리트 안내서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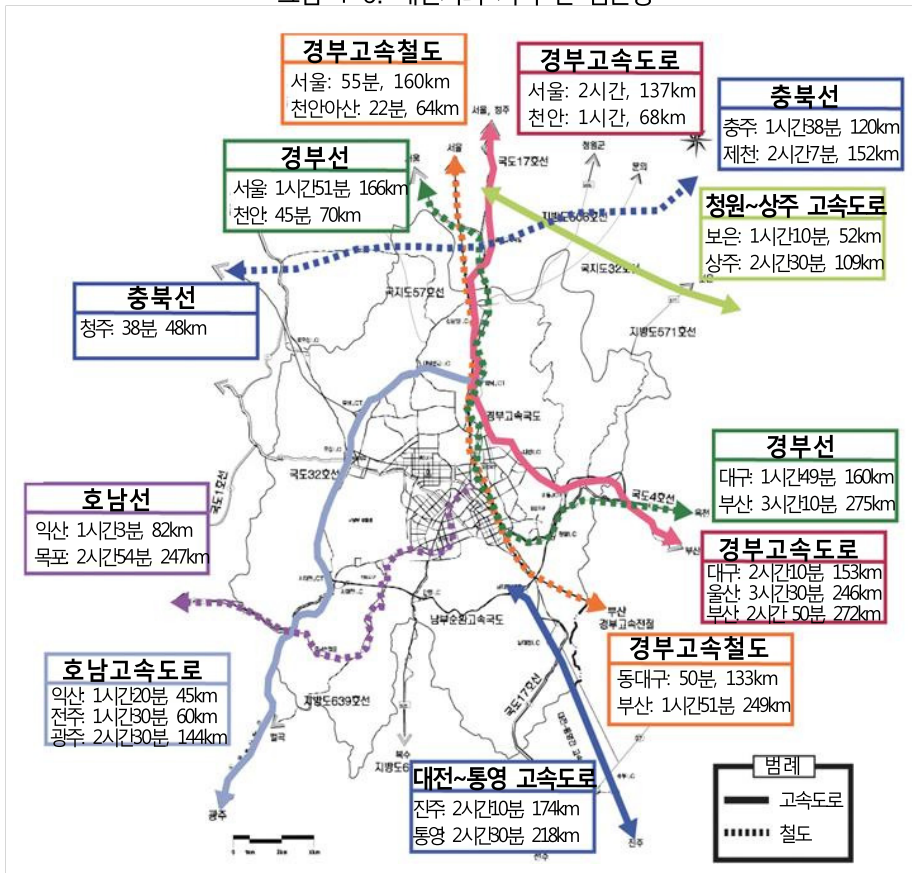
- 사이언스 스트리트 내 연구기관 및 시설의 위치, 정보 및 특징, 개방시간, 그리고 스트리트 내에 행해지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망라해놓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 또한 거리 곳곳에 사이언스 스트리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부착해놓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사이언스 스트리트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대전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손쉽게 사이언스 스트리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교통과 행정의 기능을 각인하는 도시경관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교통중심 및 행정기능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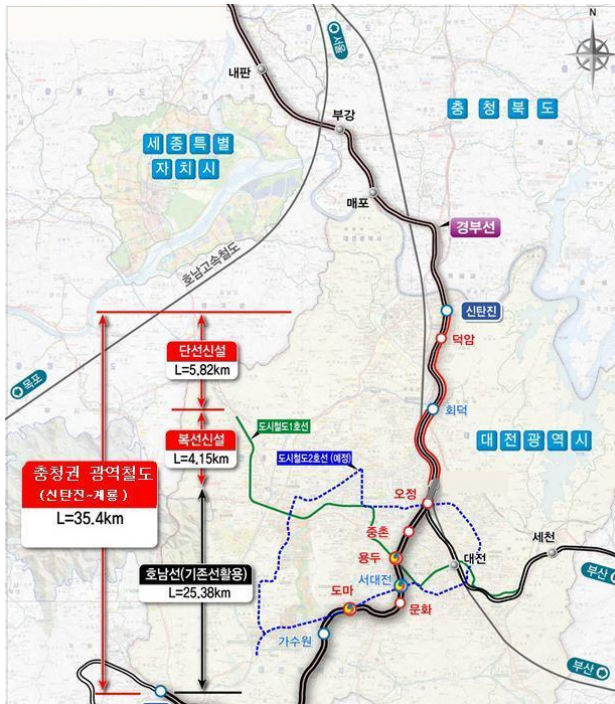
- 대전은 경부철도에서 중요 통과지점이자 철도부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중요한 기지였음
- 1905년에는 경부선 개통과 대전역 신설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음
- 1970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됨

그림 4-6. 대전시의 지역 간 접근성



- 대전의 도심에서 북쪽으로 서울 162km, 남쪽으로 부산 249km, 진주 174km이며, 서쪽으로 당진까지 105km 등 전국 주요 도시가 2시간 내로 연결됨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의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충청남도의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등 인접지역과의 광역도로망도 잘 갖추어짐
- 또한 대전의 남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계룡~신탄진)구간이 2024년 개통할 예정. 이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운영주체는 대전시가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대전 외곽의 접근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통 중심지로서의 대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4-7. 충청권 광역철도망



자료: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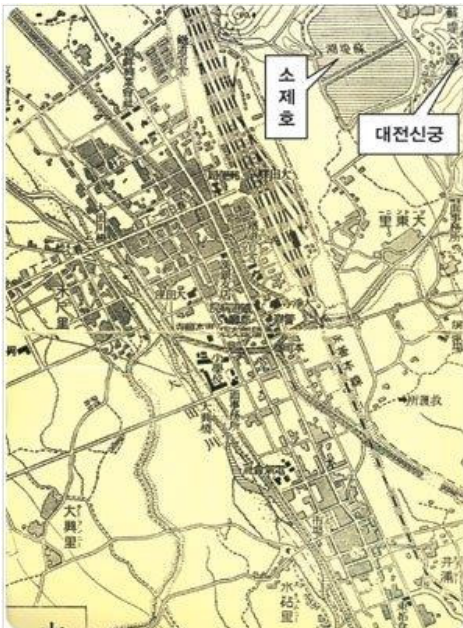
- 한편, 대전은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대전으로 임시천도 했을 때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이 과정에서 칼국수를 비롯한 음식문화가 유래하고, 문화적 가변성이 증가됨
- 1989년 대전직할시로 승격하게 되면서, 중부권의 최대 도시로 거듭남

-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들이 있는 정부청사가 지방으로 이전함
- 이에 1996년 통계청, 조달청을 비롯한 11개의 정부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은 행정 도시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거리상 인접함

2) 전략 사업 : 철도역사거리

- 대전시 동구 소재동에 있는 철도관사촌(철도관사마을)은 대전역 인근에 위치
- 한때 이곳에는 약 50㎡ 면적의 호수인 '소제호'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대전에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면서 사라짐
- 일본은 1907년 소재동에 있던 송시열의 송자고택 뒤편에 '대전신궁'을 세우고, 1927년 소제호를 매움(대전시민아카데미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2011)
- 이에 따라 소재방죽은 메워지고, 송시열 선생이 소재방죽 옆에 세웠던 건물인 기국정은 남간정사 경내로 옮겨짐

그림 4-8. 소제호가 표시된 옛 지도



자료: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53쪽

- 1920년대 말 대전역 동쪽으로 일본 철도기술자들을 위한 ‘철도관사촌’이 소재동에 건설됨
- 소재동 철도관사촌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이후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현재 40여 채의 가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 이 중에서도 소재관사 42호는 ‘예술창작촌’으로 변신하여 전시회가 열리거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됨
- 철도관사촌의 ‘솔랑시울길’에는 건물 벽 마다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음
- 또한 솔랑시울길은 1970~1980년대의 전경이 남아있어 근대와 현대의 모습이 공존하는 길이라 볼 수 있음(대한민국 구석구석 “솔랑시울길” 검색, 2019.01.17.)
- ‘대창이용원’은 6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대전 기네스’로 등재됨
- 1956년에 지어진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 보급창고(3호)’는 등록문화재 제 168호로 지정되어, 현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됨
- 따라서 일제의 수탈과 억압의 아픈 역사와 함께 대전의 철도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대전역과 인근의 소재동까지 ‘철도역사거리’를 조성하여, 대전의 근대유산보존은 물론 교통 중심지로서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그림 4-9. 철도역사거리



(1) 철도 관련 문화재 보존

- 현재 진행 중인 ‘4차선 신안로 공사’ 및 ‘복합1구역’을 비롯해 향후 ‘삼성 4구역 재개발’이 추진되면 철도관사촌의 70%인 26동이 허물어질 예정
- 대전시는 철도관사촌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했을 때, 보존가치보다 소요예산이 크다고 판단함(박수영·한윤창, 2018.11.21.)
-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개발중심의 논리에 의한 철거 보다는 철도관사촌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
- 철도 관련 문화재가 보존되어야지만, 향후 철도박물관 유치하는데 명분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소재동의 사용하지 않는 철도관사를 수리해 예술가들의 레지던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철도관사촌이 보존이 필요
- 현재 대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인 ‘사.이 잇다’가 진행되고 있음
- ‘사.이 잇다’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철도’로 보고 대전 원도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 예술인, 단체들이 모여 음악회, 영화제, 기차여행, 연극제, 전시, 퍼포먼스 등 각자의 재능에 맞게 기획하는 프로그램임(‘사.이 잇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참고)
- 따라서 ‘철도관사촌’이나 ‘철도청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 보급창고’와 같은 건물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대전의 교통 및 철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음악극과 연극, 전시회, 그리고 근대유산투어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활동과 아카이빙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2) 대전역을 랜드마크로 조성

- 대전은 우리나라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았지만, 현재 대전역의 서광장에 ‘사랑의 꽃시계’, 동광장에 ‘호국철도 기념동상’만 있을 뿐, 그 외의 특별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음

그림 4-10. 대전역 서광장의 '꽃시계' / 동광장의 '호국철도 기념동상'



자료: 파이낸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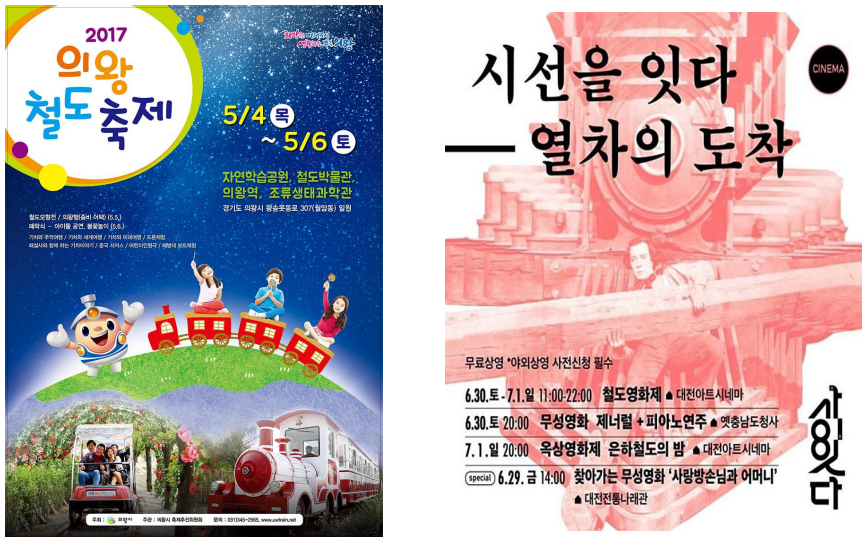
- 현재 대전역 역사 내에서 '필름 속에 담긴 한국철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미술전시나 예술조형물 등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음
- 따라서 대전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사 곳곳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예술공연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전시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영국의 킹스크로스 역(King's Cross railway station)의 경우, 해리포터영화의 배경으로 출현하면서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후 해리포터를 떠올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아, 킹스크로스 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찾게 되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됨
- 대전역도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대전의 철도역사와 관련된 조형물 설치는 물론, 야간 조경 및 안내표지판 정비, 그리고 대전의 철도문화와 관련된 디자인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경관을 정비 및 조성해야함

(3) 대전철도축제

- 교통중심지이자 오래된 철도 역사를 가진 대전의 정체성을 다지고, 시민들의 참여유도와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전철도축제를 개최해야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철도축제가 열리고 있음

- 대전에서도 철도축제를 개최하여 기차여행 프로그램, 대전의 철도이야기, 과학 문화와 융합한 체험프로그램, 전시행사, 공연,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함
- 특히 대전역 인근에 있는 우송대와 연계하여 철도문화아카데미, 철도관련 직업 체험 행사도 개최하면 보다 유익할 것임

그림 4-11. 의왕철도축제 / 대전 철도영화제 홍보 포스터



3) 전략 사업 : 칼국수거리

- 칼국수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대량으로 공급된 밀가루를 먹는 방법 중 하나로 발전한 것으로 보임
- 대전은 대전역이 있어서 구호물자 보급이 보다 쉬웠고, 밀가루 보급 역시 활발했음. 이에 대전역 부근에 칼국수 전파가 쉬웠던 것으로 예상됨
- 대전의 칼국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종류가 다양함.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 중심지답게 대전에는 전국의 각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의 다양한 솜씨와 재료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이성희, 2017.01.11.).

- 현재 대전에 있는 음식특화거리로 서대전 네거리 인근 오류동에 ‘오류음식특화거리’가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음식이 특화된 거리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탕, 전골, 찜, 구이, 등 101개의 음식 전문 업소들로 이루어져 있음
- 대전에는 많은 칼국수 가게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역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역 인근에 칼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해야함
- 이를 통해 대전의 칼국수 역사를 알림과 동시에 원도심을 살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림 4-12. 대전역 근처 칼국수 가게분포(빨간원 표시)



- 특히, 대전역 주변에 있는 역전시장을 비롯하여 중부시장, 중앙종합시장, 자유도매시장, 국제시장등과 연계하여 칼국수거리를 조성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경우 도심 한가운데에 시장이 위치하여 1960 년대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 커뮤니티와 상인조합의 반대로 철거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음
- 대전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심 내 시장을 잘 보존하고 활용해야 함
 - 또한 서대전역공원에서 해마다 '칼국수 축제'가 열리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나아가 대전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대전역 인근 칼국수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공모전을 통해서 칼국수거리를 상징하는 심벌을 공모 : 캐릭터, 폰트 등
 - ② 대전의 역사와 관련 있는 칼국수의 역사를 보기 쉽게 나타낸 안내판 설치
 - ③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칼국수 축제 활용
- 칼국수거리에서 개최하여 칼국수 거리의 정체성 강화
- 이색 이벤트 개최 : 건강한 칼국수 경연대회, 어느 가게 칼국수 맞추기 대회, 시 식회 혹은 품평회, 반죽체험 등

그림 4-13. 칼국수거리



3. 근대 역사의 경험을 기억하는 도시경관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근대문화도시

- 대전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존 도심의 역사는 대전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음
- 근대건축물은 대부분 기존도심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의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주변의 근대건축물은 중요한 유형적 자산으로서, 대전의 근현대사를 알려주는 상징적 건축물임
- 여기에는 옛 철도청 보급창고, 옛 충남도청상무관 및 관사촌, 대전여중강당, 대흥동성당, 옛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옛 대전부 청사, 목척교, 옛 산업·조흥은행 대전지점 등의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음
- 따라서 대전은 근대문화유산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7년 4월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의 중앙동, 삼성동, 인동 일원과 중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일대 1.8km² 구간을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함
- 이 특구에서는 근대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1년까지 46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곽상훈, 2017.04.25.), 근대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는 옛 충남도청사, 충남도청 관사촌 등 근대건축유산 보존과 동시에 문화 예술자원의 융·복합산업을 육성
 - 메이커스페이스 및 문화예술촌 조성, 특구종합 인포센터 등 근대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시장, 철도역사문화체험 공간, 대전근대사전시관, 이야기가 있는 갤러리 등 근대문화예술 플랫폼도 조성
 - 또한 커피브리지 관광활성화, 케미스트리트 조성,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등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 대전국제 소극장 연극제, 토요일문화마당, 아티언스 대전, 문화관광시장 육성 등 공연과 축제도 개최

2) 전략 사업 : 이응노 화백 브랜드화

- 고암 이응노 화백(1904~1989)은 동양화의 전통적 필묵을 활용해 현대적 추상화를 창작한 한국현대미술사의 거장임
- 이응노 화백은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이지만, 그의 작품을 전시해놓은 미술관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하고 있음
- 2007년에 개관한 대전 이응노미술관은 이응노의 삶과 예술 작품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로랑 보두앵(Laurent Beaudouin)이 동양권에서 유일하게 설계한 미술관임
- 보두앵은 이응노미술관에 대해 “미술관은 전시 작품이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예술작품이어야 한다. 이응노 선생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반영하는 미술관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

그림 4-14. 이응노미술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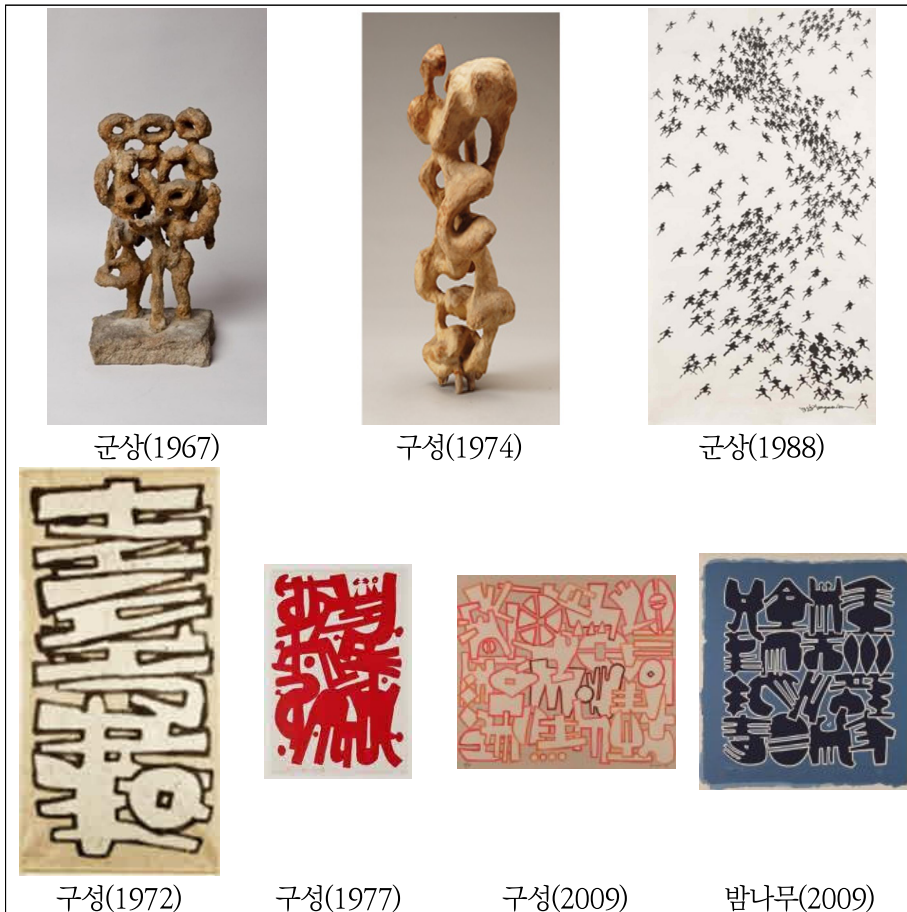


- 한국현대미술사의 거장인 이응노 화백의 미술관이 대전에 있다는 자체가 대전 시민들에게 이응노 화백의 훌륭한 작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민족의 역사적 아픔과 정신을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했던 이응노 화백의 뜻을 기리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응노 화백을 브랜드화 해야 함

(1) 이응노 작품 디자인을 ‘퍼블릭아트’로 구현

- 이응노 화백은 한국 전통미술 바탕 위에 서구 추상양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모더니스트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그의 작품은 전통과 새로움이 더해져 세련되게 보임

그림 4-15. 이응노 화백 작품



자료: 대전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

- 또한 이응노 화백의 ‘구성(1968; 1972; 1977; 2009)’, ‘밤나무(2009)’ 등의 작품은 간결하고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이 주류이며, ‘군상(1967; 1986; 1988)’, ‘생맥(1950)’의 경우에는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대전 시내 곳곳에 퍼블릭 아트(public art)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거리설치물(street installation)이나 가로등 디자인, 지하철 역사 벽화, 또는 오래된 아파트 새로 도색 필요한 곳에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벽화로 활용

그림 4-16. 이응노 그림을 벽화로 꾸민 지하철역 예시 안



- 특히 아파트 그래픽스를 활용하면,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더 크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림 4-17. 이상화 초상화가 그려진 대구 공전맨션의 '아파트 그래픽스'



자료: News1

(2) 작품 속 등장인물 되어보기

- 이응노 화백은 자신이 그린 사람과 <군상>시리즈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표현하거나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찾아오면 <군상>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처럼 서로 열싸안고 춤을 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그의 조카는 이를 '통일무'라고 표현함
-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 중에는 사람이 주제가 되는 작품이 많고 주로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
- 예를 들어 이응노 화백의 <군상>을 큰 사이즈의 벽화로 재구성하여, 해당 작품 속의 사람이 취하고 있는 포즈와 같은 모양으로 빈 공간을 표시해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자신을 맞춰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그림 속 군중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림 4-18. 이응노 선생의 그림과 포즈 참여존 예시 안



이응노 <군상>수묵화(1987) 그림
(자료: 가나문화재단)



포즈 참여존(예시 안)

3) 전략 사업 : 선화동 스토리텔링 골목길

- 도시의 골목은 그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중요한 스토리텔링 요소
- 선화동은 대전의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이자 추억과 낭만이 남겨진 장소 중 하나임
- 특히 선화동은 대전의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된 곳이라는 점에서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성도 함께 느낄 수 있음
 - 선화동 소재 근대문화유산으로 옛 충남도청, 옛 충남도청강당, 옛 충남지방경찰청 및 상무관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화동 골목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4년 정부의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화동이 선정되면서 이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옛 충남도청 담장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가로등과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물론,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폰충전이 가능한 벤치도 설치 등의 개선 사업이 진행됨
- 또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조성되었지만, 오히려 이 거리의 바로 뒤인 선화서로에 ‘선리단길(또는 선화단길)’이 조성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음
- 따라서 선화동은 대전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선화동 골목과 새롭게 조성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와 ‘선리단길’을 연계하여 선화동 스토리텔링 골목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선리단길’과 ‘선화단길’이라는 민간에서의 명칭 혼용에 대하여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선화단길’로 지정해 대외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선리단길’은 ‘경리단길’이나 ‘객리단길’ 등 타 지역의 특화거리를 단순 모방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반면, ‘선화단길’은 ‘선화동’이라는 브랜드를 부각할 수 있으며, 차별화되어 대중적 전달력과 각인 효과가 큼

(1) 근대문화유산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

- 현재 옛 충남도청사 건물에서는 평일 일몰 후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밤 11시까지 야간경관조명을 밝혀 원도심의 야간 관광명소로 탈바꿈함

그림 4-19. 옛 충남도청사 야간 경관조명



- 그러나 보다 역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옛 충남도청사와 같은 근대문화유산 건물 외벽에 대전과 관련된 스토리를 미디어 파사드 공연으로 상연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주시의 '공산성 금서루 성벽'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상영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음

그림 4-20. 공산성 미디어 파사드 공연



자료: 환경일보

-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단순 건축물의 시각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

달하는 매개물로서의 기능도 수행(안용준·지남석, 2018)

- 또한 미디어 파사드는 도심의 미적 경관 창출, 야간 명소의 발굴, 개성 있는 도시정체성 구축 등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즐거움 제공하고, 예술가에게는 창의성 발휘의 계기 및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의 문화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Ibid.)
-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통해 보다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근대문화유산 도시로서 대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

(2) 근대문화유산의 개성을 살린 보도 개선

- 현재 근대문화탐방로에는 근대건축물 탐방노선을 따라 보도블록을 교체하여 유도라인을 만들고 바닥명판, 도색라인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이동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닥명판의 크기가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우며,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음
-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된 맨홀뚜껑처럼, 각 근대문화의 상징성 및 특징을 잘 표현하는 디자인들로 특색 있게 개선되었으면 함
- 그렇게 된다면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며, 다른 디자인들의 바닥명판을 찾아다니기 위하여 찾아다니면서 자연스러운 근대문화 탐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됨

그림 4-21. 근대문화탐방로 바닥명판



그림 4-22. 일본 맨홀뚜껑



자료: 부산일보

(3) 벽화

- 2017년 KT&G 충남본부 상상유니브 대학생봉사단인 '상상발룬티어'에서 100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선화동 계단에 벽화를 그린 사례가 있음
- 이 외의 오래된 선화동의 계단이나 외벽에 대전의 근대문화유산과 관련된 스토리를 관련하여 꾸미거나 대전의 옛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벽화를 조성해야함
- 또한 선화동 골목길에 새로 도색이 필요한 오래된 주택에도 벽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4. 우국충절과 유교문화를 기리는 도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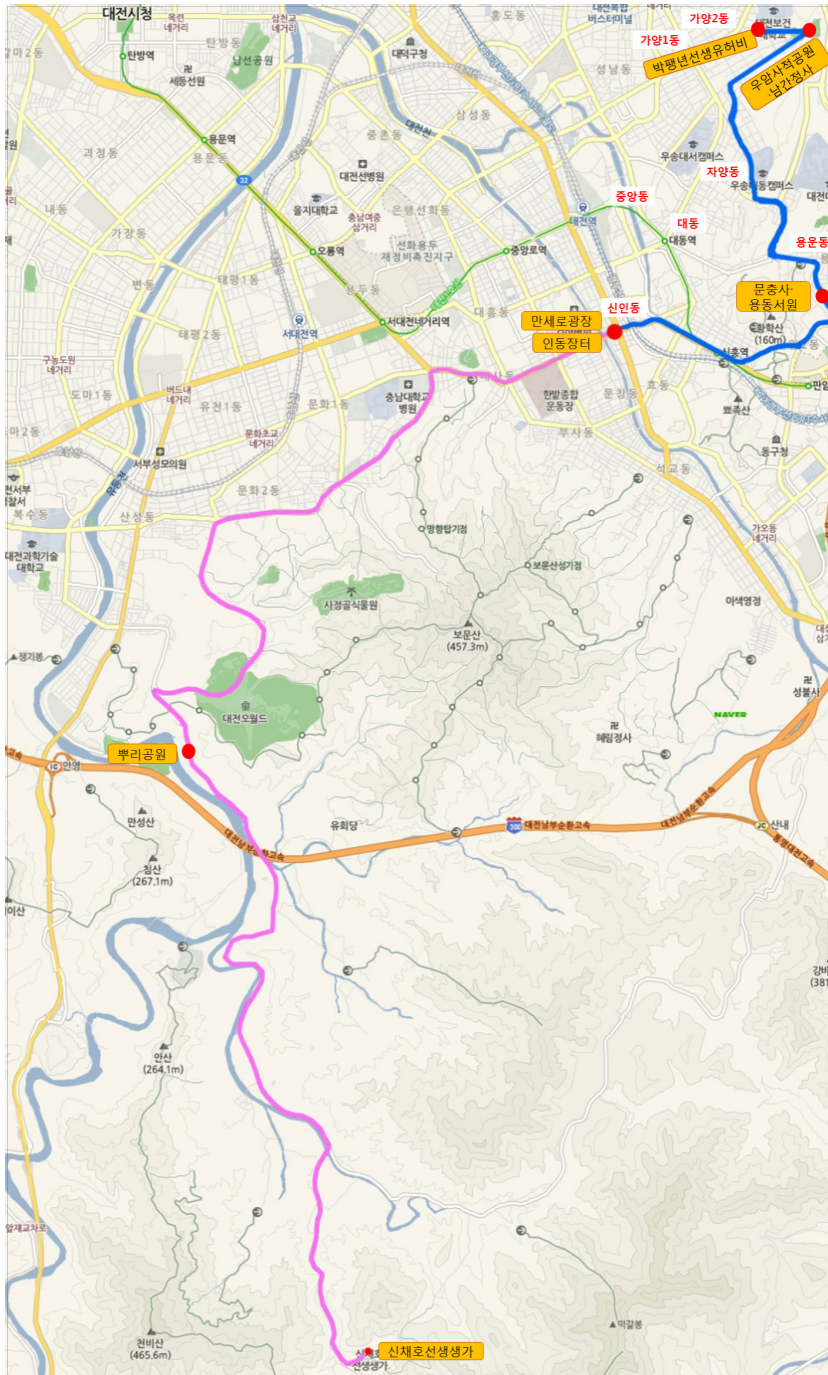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유교문화 및 우국충절도시

- 대전에는 회덕향교와 진잠향교를 비롯하여, 도산서원, 송현서원지 등의 다수의 유교 사적이 분포해있음
- 또한 조선 후기의 문신 송규렴이 강학하던 정자인 ‘취백정’과 조선 전기 문신이자 사육신⁶⁾ 중 한 명인 박팽년 선생의 유허비도 남아있음
- 대전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이이(李珥)를 중심으로 기호지방⁷⁾의 성리학자들을 지칭하는 ‘기호학파’가 성행했던 곳으로, 이러한 기호문화유산을 활용 및 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이 현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음
- 한편, 유학에서는 ‘충효(忠孝)’ 즉, 충절과 효도를 중시함. 이에 유교문화가 발달한 대전에서는 나라에 우국충절을 지킨 위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 유일의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도 대전시 중구 침산동에 위치함
- 이를 통해 대전은 유교문화는 물론, 우국충절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전의 충효사상이 남아있는 ①박팽년선생유허비, ②우암사적공원, ③문충사, ④인동장터, ⑤뿌리공원, 그리고 ⑥신채호선생생가를 중심으로 ‘충효문화탐방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6)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 중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6명을 가리킴

7) 기호지방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황해도와 충청도 일원으로서, 동쪽은 관동지방, 남쪽은 호남지방, 북쪽은 관서지방과 접경을 이룸(네이버 지식백과 “기호학파”, 2019.01.22. 검색.)

그림 4-23. 충효문화탐방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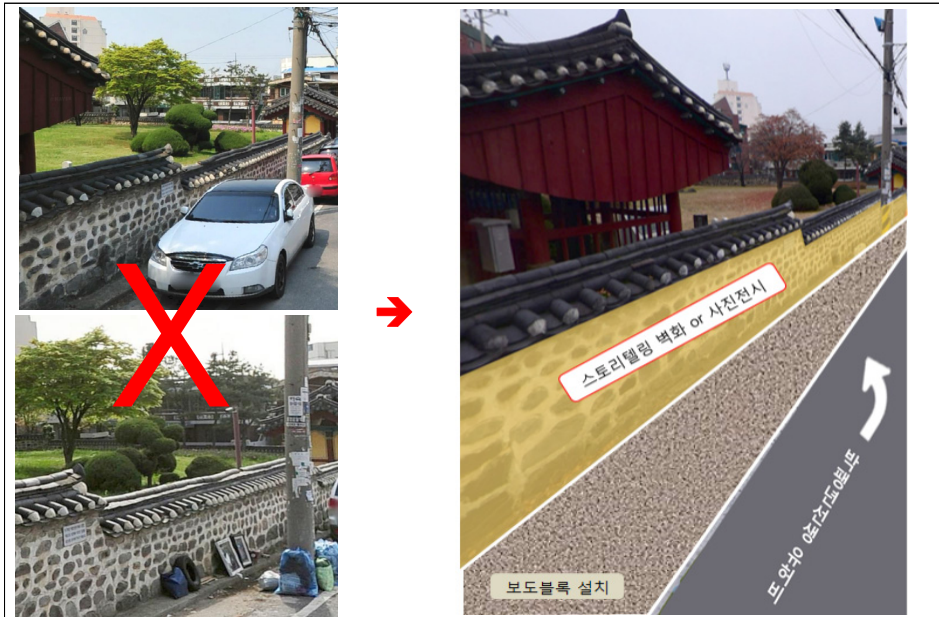


2) 전략 사업: 충효문화탐방로

(1) 박팽년선생유허비

- 박팽년선생유허비는 사육신 중 한 사람인 박팽년(1417~1456) 선생의 충성심을 추모하기 위해 1668년 유림들이 박팽년의 유허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춧돌을 모아 세운 비석임
- 현재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으며 1989년 대전광역시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됨
- 하지만 삼면이 차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택들 사이에 있어 일반인들이 박팽년선생유허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어려움. 또한 유허비 앞에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박팽년의 충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박팽년선생유허비의 경관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정비가 필요함

그림 4-24. 박팽년선생유허비 도시경관 개선 예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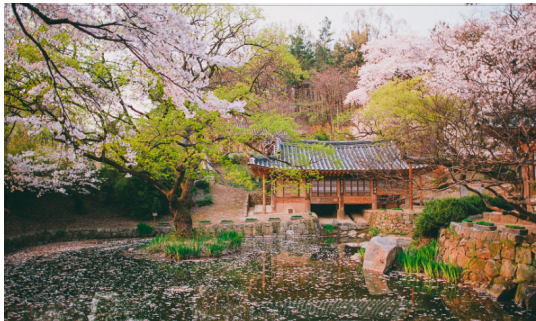


- 이를 위해 담장에 박팽년의 업적과 관련된 스토리벽화나 액자를 전시하고, 무단 주차 및 쓰레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담장 옆에 보도블록을 설치
- 담장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 명소로소도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유허비 앞에 잔디밭 공간을 박팽년을 기리는 행사나 예술 공연장소로 활용
- 또한 인근 도로에 박팽년선생유허비 위치를 안내해주는 선을 표시해줄 필요

(2) 우암사적공원

- 우암사적공원은 1998년 남간정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사적공원임
- 주요 유적으로 남간정사를 비롯하여 기국정, 장판각, 이직당, 덕포루가 있음
- ‘남간정사’는 송시열(1607~1689)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건물로, 여기에는 송시열 선생이 직접 심은 배롱나무도 남아있음

그림 4-25. 남간정사



- ‘기국정’은 원래 소제동에 있던 송시열의 별당으로, 일제강점기 때 대전역을 지으면서 소제호를 매립하게 되면서 1926년 남간정사 앞으로 옮겨짐
- ‘장판각’은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송자대전목판’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이며, ‘송자대전판’은 1795년 정조의 왕명에 의해 간행된 송시열 선생의 문집 저서, 시문, 상소, 연보 등을 모아 만든 <송자대전>의 목판활자임
- 우암사적공원은 조선시대 후기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과 관련 문화유적 및 각종 유물들은 물론 문화재 주변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역사문화경관과 자연경관이 동시에 갖추어져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 속에 담겨진 스토리와 연계된 탐방로를 조성 및 활용해야 함

그림 4-26. 우암사적공원 항공사진(자료: 구글 검색)



(3) 태극기 로드 조성: 문충사-인동장터

-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국민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기억하기 위한 대전의 대표적인 장소로 ‘문충사’와 ‘인동장터’가 있음
- 먼저 ‘문충사’는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4호로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함
- 송시열의 9세손이자 순국지사인 송병선·송병순⁸⁾형제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해 놓은 사당으로, 2014년 송병선·송병순 선생을 기리는 동상이 조성되었고, 2015년 문충사 보수 정비사업이 완료됨
- 그러나 송병선·송병순 형제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

그림 4-27. 송병선·송병순 동상 / 문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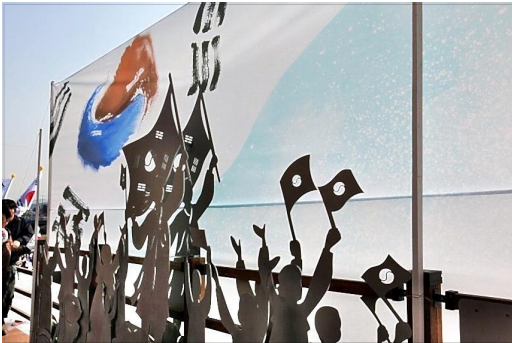


자료 : 동부연합신문 / 네이버 지식백과

8) 송병선(1836~1905)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압적 체결되자, 나라를 잃은 통분으로 1905년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순국함. 그리고 송병순(1839~1912)은 송병선 선생의 아우로,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듣고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함. 하지만 1912년 일제통치에 항거해 독약을 마시고 순국함

- 다음으로 ‘인동장터’는 1919년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진 장소임
- 지난 2000년부터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 실시하고 있으며, 인동장터가 있었던 천변테크에서는 대형 태극기 앞에 ‘3.16 독립만세운동 기념 조형물’을 설치해두어 시민들이 포토존으로 이용하고 있음

그림 4-28. 3.16 독립만세운동 기념 조형물



자료: 대전스토리

- 따라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 및 국민들을 기리기 위하여 문충사와 인동장터 사이에 ‘태극기 로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① 인동장터 인근에 독립기념비 및 독립기념전시관 건립
 -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 및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독립기념비 및 독립기념전시관을 건립할 필요
 - ② 문충사에 송병선·송병순 형제를 비롯하여 외세에 항거했던 애국지사들의 업적 및 정보가 담긴 ‘키오스크(KIOSK)’⁹⁾ 안내시스템을 도입
 - ③ 문충사-인동장터 곳곳에 태극기나 독립운동관련 인물, 문구 등이 그려진 이미지조명(그림자 조명)¹⁰⁾ 설치
 -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늦은 시간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기여

9)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으로 음성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 동적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 예약 업무,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 제공(네이버지식백과 “키오스크” 검색, 2019.01.22.).

10) 이미지가 새겨진 유리에 LED 조명을 비추어, 벽면이나 바닥 등에 해당 이미지나 문구를 투사함

그림 4-29. 그림자 조명



자료: 중도일보

(4) 총과 효를 대표하는 공원 조성: 뿌리공원-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

- 전국 유일의 '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활용하고, 애국지사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각각 '충절'과 '효도'를 상징하는 대전의 대표 공원으로 활용해야함
- 대전시 중구 침산동에 위치한 '뿌리공원'은 자신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성씨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충효사상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장이자, 가족단위의 시설 및 이벤트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도심 속에 조성된 자연공원으로 이미 대전을 대표하는 '효' 테마공원임
 - 뿌리공원 내 전국에서 유일한 '한국축보박물관'과 효문화체험 진흥공간인 '효문화마을'이 위치하고 있음
 - 또한 '효 문화 뿌리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지정됨(2015-2018년)
- 한편, 신채호¹¹⁾ 선생의 생가지는 대전시에서 기념물 제26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채호선생생가지에는 단재홍보관인 '단재헌'이 있으며, 신채호선생의 동상도 조성되어 있음

11)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언론인, 역사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애국지사

그림 4-30. 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 /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



자료: 한국관광공사 / 대전일보

- 그러나 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와 단재홍보관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도심에서 떨어진 이곳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낮음
- 따라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생가를 ‘다산생태공원’으로 명명하여 보존하고 있듯이, 단재 신채호선생생가지도 이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과 자연경관이 융합된 ‘단재산림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1. 다산생태공원 안내도



- 이를 통해 신채호선생의 애국충절의 업적을 기리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휴식 및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것
- 또한 대전의 충을 대표하는 ‘단재 산림공원’이 조성되고, 효를 대표하는 기존의 ‘뿌리공원’ 간의 관광코스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대전 충효공원 축제도 함께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경관

1) 대전의 도시정체성 : 샐러드 볼(salad bowl) 도시

- 대전시는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이자 요충지로서, 다른 지역 간 인구이동이 활발함
- 특히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충남, 세종)은 다른 권역에 비해 순이동자 수가 많으며, 2018년 11월 기준 중부권의 순이동자수는 약 2천 명임

표 4-1. 권역별 국내인구이동통계(단위: 천명)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6월 | 2018 8월 | 2018 10월 | 2018 11월 |
|-------------------|-----|------|------|------|------|------------|------------|-------------|-------------|
| 권역별 순이동 자수* | 수도권 | -21 | -33 | -1 | 16 | 5 | 6 | 4 | 2 |
| | 중부권 | 39 | 49 | 41 | 42 | 2 | 2 | 3 | 2 |
| | 호남권 | -6 | -8 | -16 | -18 | -3 | -3 | -2 | -1 |
| | 영남권 | -23 | -22 | -40 | -54 | -5 | -6 | -5 | -4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중부권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세종

-호남권 : 광주, 전북, 전남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순이동자수=전입인구-전출인구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국내인구이동통계” 검색.

표 4-2. 주민등록 전입지별 인구이동(대전←타시도)

| 연 별 | 계 | 시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
| 2011 | 264,244 | 175,460 | 13,900 | 2,511 | 2,063 | 2,820 | 1,705 | 855 | - |
| 2012 | 239,635 | 152,381 | 14,080 | 2,436 | 2,144 | 2,873 | 1,575 | 863 | 1,227 |
| 2014 | 239,559 | 156,961 | 13,403 | 2,150 | 2,254 | 2,736 | 1,665 | 839 | 2,744 |
| 2016 | 219,252 | 138,876 | 12,619 | 2,211 | 1,949 | 2,616 | 1,537 | 984 | 4,606 |

자료: 대전광역시(2017c), 84쪽.

표 4-3. 주민등록 전출지별 인구이동(대전→타시도)

| 연 별 | 계 | 시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
| 2011 | 260,900 | 175,460 | 14,890 | 2,074 | 1,848 | 2,782 | 1,261 | 728 | - |
| 2012 | 239,136 | 152,381 | 14,570 | 2,013 | 1,734 | 2,812 | 1,130 | 952 | 5,387 |
| 2014 | 248,397 | 156,961 | 14,172 | 2,190 | 1,818 | 2,621 | 1,248 | 909 | 14,093 |
| 2016 | 229,883 | 138,876 | 13,726 | 1,807 | 1,710 | 2,463 | 1,089 | 662 | 17,575 |

자료: 대전광역시(2017c), 84쪽.

- 2016년 기준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의 전입자수는 219,252명이었으며, 대전 시에서 타 지역으로의 전출자수는 229,883명이었음.
- 이 중 타 지역에서 대전시로 전입한 인구는 서울시(12,619명), 세종시(4,606명), 인천시(2,616명), 부산시(2,211명), 그리고 대구시(1,949명)순으로 많음
- 대전시는 다른 지역사람들 간의 이동이 빈번하고, 대전 출신의 토착인구 못지 않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인구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이 대전도 예외가 아님. 대전도 점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¹²⁾
-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초기에 문화 간 융합과 동화를 강조하는 용광로 이론에서 하나의 그릇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고유한 특색을 지니며 존중받는 '샐러드 볼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함
- 이는 이전부터 유입인구와 다양한 문화에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대전의 정체성은 다문화 연구에서 말하는 '샐러드볼'의 가치와 맞아떨어짐
- 따라서, 전술한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포용하는 샐러드볼의 가치는 대전의 도시정체성에서 핵심 요소이며,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경관사업으로 전략화 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적 포용과 융합이라는 대전의 대표적 도시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경관 사업 전략이 요구됨

2) 전략 사업 1: 대전 글로벌 컬처 존(Global Culture Zone)

- 서울시는 2007년 제정된 「서울시 글로벌 도시촉진조례」에 의해 서울을 국제적 허브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함
- 특히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집중입지 지역, 외국인 집중방문 지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과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 글로벌 존 프로젝트'를 추진함(박세훈 외, 2009)
- 대전시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서, 대전 내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보다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12) 대전시 외국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 1,512,449명 중 18,795명이 외국인으로 이는 전체 인구에서 1.24%에 해당됨(2018년 3/4분기 기준). 또한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8년 3/4분기 기준으로 중국인(7,451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3,183명), 우즈베키스탄(788명), 미국(785명)의 순으로 많음

쉽도록 돕고, 대전 시민과 이주민들 간의 다양한 문화 간의 접촉·만남·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 글로벌 켈처 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함

- 대전시에서는 글로벌 켈처존을 크게 ‘에듀케이션 존(Education Zone)’,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Cultural Exchange Zone)’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에듀케이션 존(Education Zone)

- 기존의 다문화 지원시설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에듀케이션 존’ 형성
- 대전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구 마다 하나씩 있으며, 이 중 유성구 소재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전시거점센터임
- 각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다문화커뮤니티센터, 대전다문화아동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원, 서부다문화교육센터, 동부다문화교육센터, 그리고 한국다문화연구원 등이 있음
- 다문화 이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시설들을 보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안내판 및 이정표를 제공하고, 보도유도 라인을 형성해야함
- 또한 관련 시설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에듀케이션 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안내 시설이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지도도 같이 만들어 놓아야 함
- 보도블록에 각 나라의 국기나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디자인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서초구의 ‘서래마을’에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보도블록이 조성되어 있음
- 다문화 지원시설 인근에 잔디밭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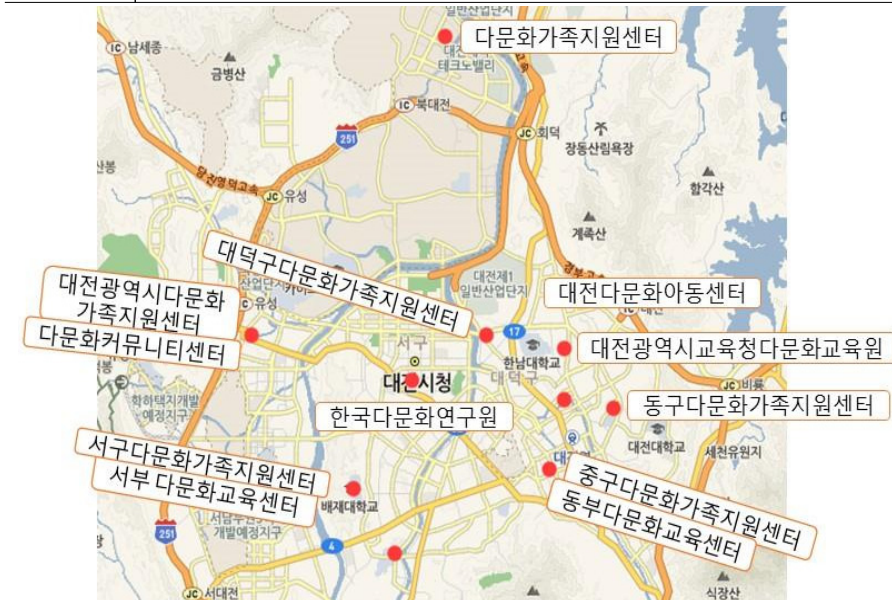
그림 4-32. 서래로의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보드블록



자료: 사이버한국의대학보 미네르바

표 4-4. 대전시 소재 다문화 지원 시설 및 연구기관

| | 기관 및 시설 |
|--------|--|
| 유성구(2) |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봉명동) - 대전시 거점센터 다문화커뮤니티센터(구암동) |
| 대덕구(3) |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오정동), 대전다문화아동센터(대화동) 대전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원(오정동) |
| 서구(3) |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마동), 서부다문화교육센터(도마동) 한국다문화연구원(탄방동) |
| 중구(2) |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흥동), 동부다문화교육센터(대흥동) |
| 동구(1) |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양동) |



(2)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Cultural Exchange Zone)

- 전통시장과 연계한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 형성
-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문화교류 존’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한민전통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다문화 음식특화거리’가 2016년에 개장됨
- 한민전통시장의 다문화 음식특화거리에서는 10여 개의 다문화음식 전통공예품을 판매함

그림 4-33. 한민시장 다문화 음식특화거리 전경(자료: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식블로그)



- 위 사례와 같이 각 구 마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을 조성하여 다문화교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모국에서 즐기던 먹거리 및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다양한 문화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에서도 에듀케이션 존과 마찬가지로 다국어로 된 안내판 및 이정표 제공, 보도유도 라인 형성, 그리고 컬처럴 익스체인지 존을 상징하는 조형물 및 안내지도를 형성해야 함
- 또한 현재 대전 엑스포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대전 최대의 다문화축제인 ‘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¹³⁾와 연계하여 ‘컬처럴 익스체인지

13) ‘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전시와 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매년 진행해온 ‘다문화 화합 한마당’과 NGO 월드휴먼브리지가 주최해온 ‘Walk Together’가 통합된 축제임

존'을 특별행사 개최지로 활용해야함

- 이를 통해 대전시 전역에서 진정한 다문화 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됨

그림 4-34. 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



2) 전략 사업 2: 로봇 문화 거리

-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 간의 만남과 상호교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감감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다수 문화뿐만 아니라, 소수 문화에 대한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대전시에도 마니아(mania), 팬덤(fandom), 오타쿠(Otaku)¹⁴⁾ 문화 등 소수문화에 대한 조명과 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14) 오타쿠는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의미함

- 일본의 '아키하바라'의 경우 1970~1980년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거리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의 메카 즉, '오타쿠 문화'의 발원지가 됨. 현재 아키하바라에는 건담, 피규어 가게들이 즐비해있음

그림 4-35. 일본의 오타쿠 문화 중심지 '아키하바라 거리'



- 대전은 첨단과학도시로서, 이에 어울리는 과학발명품이나 로봇, 드론 등을 판매하는 가게나 이를 체험 및 시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
- 따라서 대전에서도 일본의 아키하바라의 사례와 같이 오타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로봇 문화 거리'를 조성해야 함
- 마니아, 팬덤, 오타쿠 문화와 같은 소수 문화를 즐기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로봇 문화 거리가 조성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따라서 한밭대학교 입구 쪽에 있는 거리를 중심으로 '로봇 문화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 내 많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밭대학교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송숲근린공원'과 '생각꾸러미공원'을 '로봇 문화 체험 존'으로 활용해야 함
- 이 중 '생각꾸러미공원'은 시간, 로봇, 생태, 미로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된 시간공원, 로봇공원, 미로공원, 숲속공원이 구성되어 있어 로봇 문화 거리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36. 로봇공원



자료: 대전일보

- ‘송숲근린공원’과 ‘생각꾸러미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이 많이 모여, 최근 AR(augmented, 증강현실)체험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다 넓고 안정성이 확보된 공원에서 과학발명품, 로봇, 드론 등을 시연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체험 및 AR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공원에 조성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로봇 문화 거리를 조성할 때, 단순히 과학발명품이나 로봇, 드론 등을 파는 가게나 체험 장소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거리 곳곳에 로봇 문화 거리임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과 이정표 및 안내판, 배너 등이 조성되어야 함

참고문헌

- 계기석·천현숙(2001).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대전광역시(2014). <통계연보>.
- 대전광역시(2015).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 대전광역시(2017a). <202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 대전광역시(2017b). <2017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2017c). <제56회 대전통계연보>.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2002). <지도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
- 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의제21추진협의회(2011). <대전 근현대사 인문 기행>. 월간토마토.
- 류호철(2013). “중국 ‘난징 명성곽’의 보존정책과 역사문화환경 조성”. <문화재> 제46권 제1호. 346-361.
- 모종린(2014). <작은 도시 큰 기업>. 알에이치코리아.
- 모종린(2016). <라이프스타일 도시>. Weekly BIZ books.
- 손동욱(2007). “도시연구실 특별강연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미국 시애틀 사례”. <KRIHS Focus>. 136~141.
- 송준환(2018). “차도(車道)의 ‘광장화’ : 삿포로(札幌)시 키타3조(北3条)광장 ‘아카프라(AKAPLA)””. <建築士> 제585호. 130~133.
- 신정엽(2015). “시애틀의 도시 공간 특성 : 역동성과 다양성”. <한국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119~137.
- 안용준·지남석(2018). <세종시 미디어 파사드 도입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염인섭(2018). <대전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윤수미·김연정(2010). “생태적 도시 환경을 위한 수변공간 디자인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제23권 제5호. 211~220.
- Brabec, Elizabeth(2004), “Landscape Change: The influence of external cultural forces”. <Landscape Architecture & Regional Planing Faculty Publication Series>. ScholarWorks@UMass Amherst.
- General Affairs Bureau, City of Sapporo(2014), <Sapporo International Strategic Plan>.
- Isil Kaymaz(2013), “Urban Landscapes and Identity”. <Advances in Landscape Architecture>. Edited by Murat Ozyavuz. Intech.
- UCLG(2015), <Culture 21 : Actions-Commitments on the role of culture in sustainable cities>.

United Nations(2016),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Habitat III)>.

김소운(2017.05.28.). 겨울엔 설국, 여름엔 화원... 샛פור에 꽃보러 와요. <한국경제>.

UR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2829591?nv=o>

곽상훈(2017.04.25.). 대전 동구·중구 일부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대전일보>.

URL: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61561

박오덕(2018.07.09.). 대전시민천문대 별 음악회 봉사활동 하는 심우훈 감독님. <CMB 뉴스>. URL: <http://www.cmbdj.co.kr/ab-991-12896>

박수영·한윤창(2018.11.21.). 철도 도시의 상징 철도관사촌이 사라진다. <중도일보>.

URL: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21010009220>

박재남(2016.06.21.). 청주시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1위 선정. <동양일보>.

URL: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59>

박채호(2017.08.29.). 부산포 개항가도,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작 선정. <News1 뉴스>. URL: <http://news1.kr/articles/?3086781>

박혜령(2017.10.29.). 이 가을...변화무쌍한 시애틀에 빠지다. <한국경제>

UR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933981>

윤난솔(2017.08.03.). 전주 첫 마중길 사업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쾌거. <뉴스스>.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3_0000058836&cID=10808&pID=10800

이광표(2010.01.27.). 근대의 기억들, 예술 창작터로 부활한다. <동아닷컴>.

URL: <http://news.donga.com/3/all/20100127/25716864/1>

이명진(2018.04.17.). 경주시, 천년고도 정체성 살린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 <대경일보>. URL: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35>

이성희(2017.01.11.). 칼국수의 도시, 대전 5대 칼국수는 어디? <디트 NEWS 24>.

URL: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811>

이진주(2018.04.24.). '삼일대로' 3·1운동 시민정신 담은 역사상징가로 재탄생한다.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41203001

전유진(2018.05.15.). 전주 객리단길, 서울 연트럴 파크...성공 요소 주목해야. <중도일보>URL: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15010006118>

조경환(2018.05.09.). 조경환의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 탐방 (16) _ 지역재생, '동피랑' 과 '감천문화마을'. <뉴스프리존>. URL: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01>

주현진(2017.12.10.). [자치단체장 25시] 비움의 미학...함께 걷고 싶은 '명품 종로'의 비결. <서울신문>. URL: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1012001&wlog_tag3=naver

파이낸셜뉴스(2016.07.12.). 당진시청 버그내순례길, 13.4km에 펼쳐진 성찰의 시간.. 한국판 산티아고길로 자리매김. <파이낸셜뉴스>. URL: <http://www.fnnews.com/news/201607121622139994>

Seattle Local News(2017.06.12.). 시애틀 프리몬트 '명물' 레닌동상 조각가 별세. <시애틀 한인 뉴스넷>. URL: http://www.seattlen.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944

구글(google.com)

네이버 지식백과, 신자유주의 검색(<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158&cid=40942&categoryId=31645>)

대덕연구개발특구(<https://dd.innopolis.or.kr>)

대전마케팅공사(<http://www.expopark.co.kr>)

대전마케팅공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daejeondime>)

대전이응노미술관(<http://www.leeungnomuseum.or.kr>)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사이언스페스티벌(<http://www.djsf.kr>)

'샤.이.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42-itda>)

삿포로 시 글로벌 홈페이지(<http://www2.city.sapporo.jp/global>)

삿포로 팩토리(<https://sapporofactory.jp>)

시애틀박물관(<http://www.seattleartmuseum.org>)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판(<https://id.wikipedia.org>)

위키피디아 일본판(<https://ja.wikipedia.org>)

위키피디아 한국판(<https://ko.wikipedia.org>)

정부청사관리본부(<https://www.chungsa.go.kr>)

커먼스 위키미디어(<https://commons.wikimedia.org>)

Flickr(<https://www.flickr.com>)

open square D(<http://www.opensquared.org>)

Statistical Atlas(<https://statisticalatlas.com>)

UN(<http://www.un.org>)

UN-Habitat(<https://unhabitat.org>)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102-4 93500